

## 대중교통 안전·공공성 강화 나선다

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안 곧 마련  
202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2천개  
광역버스 노선은 400개까지 확대  
노선버스 1일 2교대제 60%로 상향

정부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2000개 시내버스 노선에 준공영제가 도입되고 광역버스 노선은 4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희적인 차선 조정으로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는 BTX 노선이 2개 신설되고 전국 도시내 평균 평균 기·중점 통행시간은 2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안(2022~2026)'에 대해 24일 온라인 공청회를 갖고 의견 수렴을 검토해 조만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안은 '포용적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의 이동권보장,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대중교통 혁신 등 4개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기본계획안에 따라 정부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수를 현재 1333개에서 2026년 2000개로 늘리고 국가사무화 광역버스 노선 수를 9개에서 265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수도권 준공영제 전환은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운송업체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스템 구축, 시외버스 재정지원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도 추진한다.

이들리 흡충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광역철도망도 확장한다. 수도권은 사부권 광역급행철도, 위례과전선, 대강출대선, 인천2호선 고안연장, 제2경인선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비

수도권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대전~세종~충북,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한다.

광역버스 노선은 현재 235개에서 2026년 400개로 늘린다.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비수혜 지역에 우선으로 신설할 방침이다.

유연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현재 1만3000개에서 2026년 1만1000개로 확대한다. 또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투입을 늘리고 대량 차량 배차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시내버스 운영을 효율화한다.

현재 고속버스 노선 위주로 투입하는 프리미엄 버스는 광역버스 및 시외버스 등에 확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프리미엄 버스를 현재 279개에서 2026년 500대로 늘릴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을 일괄 예약할 수 있는 통합이동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2026년까지 특

별교통수단 도입률은 83%에서 100%로, 저상버스 도입률은 28%에서 35%로 각각 높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종사자의 1일 2교대제를 비율을 의무화하고 기존 차량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노선버스의 즉후량 감지센서 설치율은 0%에서 30%로 확대한다. 신규 차량에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차량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노선버스의 즉후량 감지센서 설치율은 0%에서 30%로 확대한다. 신규 차량에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차량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노선버스의 즉후량 감지센서 설치율은 0%에서 30%로 확대한다.

노선버스의 즉후량 감지센서 설치율은 0%에서 30%로 확대한다. 신규 차량에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차량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노선버스의 즉후량 감지센서 설치율은 0%에서 30%로 확대한다. 신규 차량에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차량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노선버스의 즉후량 감지센서 설치율은 0%에서 30%로 확대한다.

정부는 전국 도시내 평일 평균 대중교통 기·중점 통행시간을 현재 32분에서 2026년 30분으로 2분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BTX 노선을 2026년까지 2개 신설한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통합교통서비스(MaaS) 운영 지자체 수는 6개에서 12개로 늘리고, 환승센터는 2026년까지 47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신우기자 leesu@jeonmae.co.kr

## “공공주택 차별 요소 없앤다” 서울시, 공개추첨제 전면 실시

평형 확대·노후 단지 재건축 속도 전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

서울시가 공공주택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하고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과 분양세대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작년 10월부터 가동했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안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개안안의 반영 여부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2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공주택을 분양 후 남은 세대 혹은 단지 내 별도로 배치하거나 공공 편의시설에 공공주택 입주자 이용을 제한하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 공공주택 평형 다양화에도 앞장선다. 이미 TF를 통해 50개 단지 7500여세대의 공공주택 중 소형 물량(20~60㎡ 이하)이 대다수였던 3700세대가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동호수 공개추첨제도 전면 실시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를 배정하는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전체 주택 동호수 추첨에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제도다.

시는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호)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지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는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대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은 확대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2배 늘려 4만6000명까지 확대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정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입주민 자율로 주택관리가 이뤄졌던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공주택 거주자도 센터를 통해 전문업체의 청소·주차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5700호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 인식 개선 차원에서 공간·공급·관객에서 불렀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는 각각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변경한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설 연휴 한 주 앞으로...전통시장 찾는 시민들 설날 연휴를 한 주 앞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제수용품 상점을 찾은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홍광우기자

## 수도권 지자체들 '품앗이'로 쓰레기 매립 허용량 대응

수도권 지자체들이 쓰레기 매립 허용량을 '품앗이'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를 반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의 반입 총량을 줄여 인구가 많이 증가한 지자체에 조금 더 할당하는 방식이다.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수 변화 등을 고려한 생활쓰레기 반입 총량을 확정된 뒤 매립지공사에 통보했다.

반입 총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립지공사로부터 배정받은 뒤 기초자치단체에 다시 할당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올해 반입 총량제 대폭 강화 인구 증가 지자체에 더 할당 총량조정 불구 "턱없이 부족"

올해 반입총량제가 강화되면서 매립지공사가 배정한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2% 수준으로 지난해(2018년 반입량의 85%)보다 줄었다. 서울시 25만1100t, 인천시 8만7648t, 경기도 24만1500t이다.

수도권 3개 시·도 중 먼저 반입 총량을 확

정한 경기도는 일부 지자체의 총량을 줄이고 인구수 변화 등을 고려해 지자체 13곳의 총량을 늘렸다.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하남시의 올해 반입 총량은 작년 1670t에서 올해 2000t으로 늘었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소각장 용량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 지자체별 사정을 반영해 반입 총량을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별 수도권매립지 평균 반입량이나 소각량 처리 가능량 등을 토대로 반입 총량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입 총량 조정에도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물량을 조정된 것은 아니라 지자체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해마다 계속해 반입 총량을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갈수록 어렵다는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수도권 지자체는 서울 17곳, 경기 14곳, 인천 3곳 등 모두 34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중 5~10일간 자매립 생활 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는다.

인천/맹정우기자 mchs@jeonmae.co.kr

## 경북도 "올해 투자유치 8조원 달성 전력투구"

민선7기 목표액 20조→30조원  
첨단·고부가가치 기업에 집중

경북도는 올해 투자유치 8조원 달성을 목표로 첨단산업을 끌어들이는 데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도는 투자유치 목표액을 당초 5조원에서 8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선 7기 목표액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높였다.

특히 급속도로 첨단화·고도화하는 산업 변화에 맞춰 기업·대학·혁신기관·연구소와 협력해 전략 분야 타깃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차, 수소 산업, 신소재, 반도체 등 첨단·고부가가치·기술혁신 기업 유치에 전력할 방침이다.

또 규제 자유 특구 확대, 인센티브 지원 등 차별된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활용해 수도권 기업과 해외 진출기업의 지역 투자, 지역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유도해나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한 외국인 투자는 전기·수소차와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기업의 증액 투자, 국내기업과 합작투자를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포항·구미 지역은 이차전지·반도체·수소, 경산·영천·경주는 전자·관련

자동차부품·원자력·신소재, 안동·영주는 바이오·친환경 가공식품, 김천·상주·문경은 물류·배어링·소재 관련 기업을 중점 유치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투자유치 11조697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자체 투자유치 가운데 수소,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역에 많은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04-총-113259

### 건강관리의 시작

## 건강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

문의 : 032-890-8700

힘든시기를 이겨내고 새 희망의 기운과 일상의 회복을

# 2022년

소망이 믿음의 되고  
믿음이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주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단신브리핑

코로나19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추진

전남도가 오는 28일부터 22개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고 PCR 검사를 전라적으로 시행하는 등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도입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진단검사의 경우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PCR 검사도 진행한다. 또 일반 진단검사의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자가검사키트 라인을 마련, 즉시 검사해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를 현장에서 실시한다.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 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도내 8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15개 민간 호흡기 진단 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전문기용 신속 항원검사를 시행한다. 막는 치료제 투약 범위도 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요양병원까지 확대한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급증함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 기준을 검사일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하고 격리면제자 대상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검사 실시, 격리면제 관리 강화, 방역 교통망 이용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 방역, 주 3회 PCR 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추가 집중을 독려할 예정이다.

남원/권상용기자 ksa@jeonmae.co.kr

1인 청년가구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 성남시는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시와 협약한 N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서 주택 임차보증금을 대출(최대 5000만원)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대 3%,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예비)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일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은 50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일영기자 leey@jeonmae.co.kr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세종시가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심 특성에 맞는 도시 환경 설계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7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방향 제시, 기존 가이드라인 수정, 범죄취약지역·시범사업대상지 선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 참여에 기반을 둔 선택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각 지구단위 현황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세종/유양준기자 yjyu@jeonmae.co.kr

경북도, 설 명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코로나19 방역 등 비상상황 대비 체계 대폭 강화  
여객수송·교통안전·응급진료 등 6대 분야 중점

경북도는 코로나19 특별 방역과 비상상황 대비대응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둔 설 명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비상근무, 여객수송 및 교통안전, 안전점검, 응급진료,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도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6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연휴기간에 24시간 재난안전의료교통 대책 상황반을

가동하고 도시군유관기관 협업으로 안전분야 점검 강화 및 비상상황 대비를 통해 귀성객 및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선별진료소 44개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13개소,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운영한다.

또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를 중점관리하고 다중이용 시설, 장사시설 방역 실태점검을 실시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소방관서 특별경계 근무 실시, 119 종합상황실 확대운영, 가축방역 종합상황실 운영 등 철저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교통량 증가에 따라 특별교통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교통시설수단 방역상태를 사전점검 하며 여객 수요 증가 노선에 대해 운행횟수, 배차시간을 조정해 원활한 교통소통 흐름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전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 회사별 응급복구반도 편성 운영한다. 이밖에 연휴기간 응급환자 비상진료 및 긴급이송 체계 확립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방문, 화재취약 대상 맞춤형 소방활동 강화 등에도 민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중권 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전을 기하고, 특히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력/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동절기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이천구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최근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자석산업터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특별 안전 점검을 벌였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수원시 공직자 "적극행정·규제개혁 적극 나설 것"

온라인 실천 다짐 대회 진행  
5개 분야 27개 과제 추진

경기 수원시 공직자들이 "올해도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진행했다.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적극행정 실천 다짐' 배너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배너를 클릭하면 '우리 함께 적극행정' '혁신성장 규제개혁'이라는 다짐 구호와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에 대한 설명이 담긴 팝업창이 뜬다.

시는 2020년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행정 실천다짐'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왔다. 2020년 5~7월 진행된 '공직자 마인드 혁신 적극행정 실천다짐'에는 연태영 시장, 조형식 제1부시장 등 105개 부서 1833명(합업기관 포함)이 참여했고, 같은 해 9월 '적극행정 비대면 온라인 실천다짐'에도 1300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2월에는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진행된 확대간담회의 중 열린 '2021 마인드 혁신 적극행정 실천 다짐' 행사에서 연태영 시장을 비롯한 3500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시는 올해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유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학과, 국민신청서 등 5개 분야 27개 과제, 11개 중점 과제로 이뤄진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유 확산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규제개혁 실행계획'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조형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이라며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신자기자 spark@jeonmae.co.kr

충남도,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 속도

416억 투입 95개 사업 추진  
정착지원형 등 5개 유형 실시

충남도가 416억원을 투입해 도내 2235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지역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기존 57개 사업과 신규사업 38개 등 총 95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지역혁신형, 상상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지역정착지원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신규사업 중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등 20개 사업은 참여 사업장 및 청년 824명을 선정해 2년 동안

월 200만 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3년 차에 취업·창업 정착하는 청년에게는 추가로 1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 54명을 모집하는 청년청년 성장지원 7개 사업은 연간 1500만원의 창업지원경비를 지원하고 2차 연도에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년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지역기업기반이 약한 소멸위기지역 관련 2개 사업은 신규 취업 28명을 모집해 1년차 창업성공 시 2년까지 연간 1500만원의 창업지원경비와 3차 연도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년 인건비를 지급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청년도와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참여 사업장 및 청년 1117명을 선

정해 월 187만여 원(임부담 10%) 수준의 임금과 직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기존 지역정착지원형과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사업에는 1218명이 참여 중이다. 참여 사업장 및 청년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및 충남일자리진흥원 공고 안내문을 참고해 사업별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식 도 청년정책과장은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한상규기자

경기도, 깨끗한 바다 환경조성 관리계획 수립

7개 추진전략·12개 과제

경기도가 2022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해양폐기물과 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 도민 인식 제고 등 관리를 위해 7개 추진전략,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바다지킴이 운영, 감공식 어망의 스티로폼 부표류 친환경부표로 교체, 불법어업 및 선박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낚시터 환경개선, 낚시터 환경지킴이 운영, 연안정화의 날 등이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 건조한 경기청정호를 활용해 해양 잔존폐기물 등 150톤을 수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 폐어망의 재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수매 사업과 육상 폐기물의 해양유입 방지를 위해 도내 하천에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시범설치를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해양폐기물 수거의 편의를 위해 해상 및 육상 집하장 4곳을 설치하며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아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자연과 문학이 함께 어우러지다

수성동천(水聲洞天), 윤동주문학관

수성동계곡

조선 후기 검재 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의 배경이 되었던 수성동계곡을 옛모습으로 복원하여 그 정취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자연명소입니다.

윤동주문학관

폐수도가압장과 물탱크를 원형 그대로 활용하여 시인의 대표작에서 볼 수 있는 시어 '하늘,바람,별,그리고민족'을 잘 표현한 건축입니다.

# 李 “총 311만호 주택공급...김포공항 준치 주변 20만호”

부동산공약... 서울 48만호 신규택지로 용산공원 일부·1호선 지하화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에 LTV 최대 90% 적용” “文정부 정책 부인할수 없는 실패, 사과...국민의품·시장요구 존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약속한 311만호의 공급 규모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부동산 표시’를 공격하기 위해 기존 공약보다 한층 규모를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공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후보는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서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이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을 제시했다. 기존 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

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각각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방안이 기존 공급계획을 포함한 서울의 총 공급량은 107만호(기존 59만호+신규 48만호)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계획 12만호보다 28만호 늘어나고 기존 택지 재정비는 중점의 2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 8만호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 주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를 합해 20만호 규모가 된다. 이 후보는 여기에 경기·인천 지역의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경기·인천의 총 공급량은 기존 128만호에서 15만호로 늘어난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난다.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은 기존 20만호에서 8만호 증가한다. 이 후보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신규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취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또 청년 등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공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여력에 따라 일반분양 외에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누구나집’형·이익공유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주택과 평생주택 등이 포함되는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임대조각형)·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며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가계부채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타 제공>

## 지역상품권 가맹점 규제 강화...부정행위 1년 재등록 제한

정부가 지역상품권에 대한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섰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규제 현장에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도록 액수를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점 등록취소 사유별로 6개월~1년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설정하며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만약 가맹점이 부정수취, 결제거부 등의 부정 유통에 연루되거나 가맹점 제한 업종인 경우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주는 다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재등록 가능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했다. 등록이 취소된 업종과 비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 셀엔더 지자체 입장에서는 등록을 거부할 규정이 없어 등록 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실제 매출금 이상의 환전을 한 경우(상품권 강), 지역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1년간 재등록을 못하도록 했다. 또 지역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잔액 환급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재등록을 6개월간

제한하게 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유형에 대해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일 경우,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등에 최대 절반까지 재등록 제한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액수를 감액했다. 과태료의 최저금액이 다소 높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했다.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실제 매출금 이상의 환전을 한 경우 등 2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차 위반시 과태료를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췄다. 대신 위반 행위가 고의이거나 중과실에 해당할 때,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 과태료를 기존 금액의 절반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지역상품권은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지역 주민에게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정부는 올해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조원 가량 지역상품권의 발행을 도울 계획이다. 지역상품권은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데다 포인트 적립 혜택 등도 있어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에 따라 발행액이 늘어난다는 추세지만 부정 유통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 신규확진 1주새 두배...방역체계 전환 초읽기

17일 3857명→23일 7630명...역대 2번째 규모 토요일 기준은 최대 검사양성을 4%대·비수도권 비중 30%대 전국화...설 이후 2만명 전망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천명에 근접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두고 방역·의료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유행 규모가 감정을 수 없이 커져 하루 확진자가 수만명씩 쏟아져 나오게 되면 지금의 ‘3T(검사·추적·치료)’ 중심의 전략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천630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이후 두 번째로 많다. 최대 기록은 지난달 15일의 7천848명이다. 토요일(발표요일 일요일) 기준

은로는 역대 최대 수치를, 앞서 토요일 기준 최대치는 지난달 12일의 6천633명이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달에는 신규 확진자의 8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60%대로 낮아지는 등 유행의 전국화 양상도 뚜렷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 수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내다 조중순 2만명대로 증가하고, 특별한 방역조치가 없다면 확진자가 앞으로 10만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천명을 넘는 등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가 현실이 되자, 당국은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우선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일

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또 같은 날부터 광주, 전남, 경북, 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화 지역 4곳에서 새 방역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개 지역에서는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만 선별치료소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할 수 있다. 특히 당국은 이날 말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택치료자가 수백만 명으로 늘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행정력으로는 이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또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환자와 접촉자 등의 격리로 인해 의료나 교육, 돌봄 같은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새롭게 변화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따뜻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신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8대 후반기 보령시의회  
BORYEONG CITY COUNCIL

의장	박금순
부의장	김흥기
의회운영위원장	권승현
자치행정위원장	조성철
경제개발위원장	백남숙
의원	최주경
의원	박상모
의원	한동인
의원	김충호
의원	문석주
의원	최용식
의원	김정훈

### 與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22억 모두 처분”

#### “최대 35억 수익 실현 추정”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의원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보유하고 있던 22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가 조작이 집중된 시기에 전량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도이치모터스 감사보고서상 주요 주주명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 31일 기준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김씨가) 2010년 총 22억 원(매입가 기준 합산)에 달하던 도이치모터스 보유 주식을 주가조작이 집중된 시기였던 2010~2012년 사이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시기는 검찰이 특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 주가 방어 등 주가조작이 집중적으로 일

어난 시기와 일치한다고 TF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주가 부양기간 2011년 상반기 주식을 매도했다면 10억~35억 원대 수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주가 방어기간 2011년 하반기 또는 2012년 주식을 매도했다면 2억~2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F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각각 2011년 상반기 4000~7000원대, 2011년 하반기 또는 2012년 3000원~6000원대였으며, 김씨의 주당 평균 매입 단가는 2765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TF 단장은 “국회의원은 김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막무가내식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2012년까지의 매도 정보가 포함된 주식 거래 내역,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실현한 수익, 22억 원 주식 매수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 安, 김정은 향해 “비핵화 의지 밝히고 대화 재개 선언해야”

#### “핵실험·ICBM 발사 상황 악화시킬 뿐”

국회의원 안철수 대선 후보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대화 재개를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드리는 공개 서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의 ‘신뢰 구축 조처를 전한 재고하겠다’는 발표를 보고 공개 서신을 띄운다”며 이렇게 적었다.

안 후보는 “저는 이것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조치 해제’가 아닌 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는 좋은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북한이 오랜 유엔 제재에 코로나 19까지 덮쳐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믿고 막상 부랴부러

니 실행으로는 그렇지 않았고, 북미 관계도 평행 선만 달리니 답답할 것”이라며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통한 강경 조치로 내부를 단속하고, 미국의 관심과 주목도를 높이는 새 판을 깔아 다시 협상하고 싶을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대선 주자들에게도 자기를 잊지 말라는 신호를 주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북한이 원하는 새 판은 무력도발로는 결코 짜질 수 없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와 실천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더 이상의 무력사유나 도발이 아니라 핵실험과 ICBM 도발로 리엄(유예)을 준수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계획들을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 尹 “재택 형태 유연근무제 보장”

### 부모 육아 재택·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보 정보 대응 방지 등 4개 공약 발표

#### ‘공약위키’에 국민 제안 1500여개 접수 ‘심롱약속’ 18번째...저소득층 급식 확대

국회의원 윤석열 대선 후보는 23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보장하는 내용의 ‘부모 육아 재택’ 제도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공약 ‘안박싱 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4개 공약은 시민들이 정책 공약을 직접 제안하는 ‘공약위키’에 올라온 아이디어 가운데 당 전문가와 청년보좌역들을 통해 실제 공약으로 다듬어진 것들이다.

‘부모 육아 재택 보장’ 공약은 근로자들이 일정한 기간 육아 재택 근무를 선택하게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 내용은 30대 한의사 오현주 씨가 제안했다.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공약은 영양용 식품차부터 변화와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대응 방지’ 공약은 개인정보 불법 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QR 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은 내·외국 비율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 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 지원 간부 승진 시 일정한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사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했다. 지난 1일 공개된 ‘윤석열 공약위키’(www.wikyoon.com)에는 현재까지



‘국민공약 안박싱 데이’ 행사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의원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안박싱 데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정기자 seo@jeonmae.co.kr>

1500여 개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고 페이지뷰는 100만, 댓글은 3만개가 넘었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스캐이스 성격”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저소득층·차상위계층·위장관·싱글대기 가정 초등학생에게 급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롱약속’ 18번째 공약 보도자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방학 점심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 급식에 따라 초등학교 급식은 학

기 중 수업일 점심만 제공된다.

윤 후보는 희망자·취약계층·교육여건이 열악한 시군구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 급식 지원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식당 이용 쿠폰’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서 급식이 들쭉날쭉해 한창 먹어야 할 성장기 어린이들 식생활 건강도 적신호”라며 “특히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부담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위장관이나 싱글 대가족은 ‘방학 때는 아이들 아침과 점심 두 끼를 차려놓고 출근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한다”며 “급식 중단으로 조리 인력도 일감이 끊어지고, 사자제 농가마저 경영 위기가.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초등돌봄교실 대상을 초등학생 전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학기 중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학 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 1~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 與野, 추경 “35조 vs 45조” 돈 뿌리기 경쟁

### 與 “머리 맞대지” 野 “새 추경안 필요” 재원 조달 방식 협상시 또 다른 뇌관

여야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삽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자마자 민주당이 ‘35조원’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간 ‘45조원’을 거론하는 등 예초 정부안 대비 2~3배 규모의 천문학적 숫자가 오가고 있다.

양당 모두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예산을 앞두고 정작 시급한 소상공인·지역업체 지원 논의는 뒷전이고 ‘돈 뿌리기’ 공약 주도권 경쟁으로 표계산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재원 대책은 사실상 차기 정부 몫으로 미뤄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추경 증액을 위한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추경 규모는 35조 원으로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32조~35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국민 의힘 효용을 끌어내 일단 테이블에 앉히려는 의

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3일 “윤석열 후보는 50조, 100조 숫자만 얘기하고 실제 추진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여야 제안을 가리지 말고 일단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정부·여당이 새로운 추경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추경 규모도 정부안인 14조 원에서 최소 45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찌감치 주장해온 50조 원과 맞먹는 수치다.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에서 32조~35조 원을 추가로 증액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내대표실이 당 정책위, 여결위 간사와 추계한 결과, 약 45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식은 여야 협상에서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 분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추가 국제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올해 예산안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선 사실상 추경을 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없다

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예산안 60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 후보 간 신년경도 가열되면서 책임 전가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의 회동 거부에 “앞으로는 (추경을)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중플레이·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앞으로 그러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저를 평정화시키고 싶은 모양인데 이게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더 논의할 게 뭐가 있나.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구체적인 금액, 용처를 가져야 한다”고 받아냈다.

정리된 이종원 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쟁에서 “이무리 대선판에서 경쟁한다지만 지역업체 손실보상, 보건 의료인력 확충 등 급한 불 끌 때는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자”고 꼬집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 지방시대

전국매일신문 자매지 www.jeonmae.co.kr

2022 02

Cover Story  
맹정호 총남 서산시장

## “더 크고 더 강한 서산으로 虎視牛行”

(서산부활)

※ 전국 유명서점 예약 판매중 ※ 구입·구독 문의 1588-5762

### 여야 주자 ‘생활밀착형’ 공약 쏟아내며 민생 현안 집중

여야 양당 주자가 연일 ‘생활밀착형’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소속하고 확실한 행복),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석열씨의 심롱 약속’을 각각 사리조로 전개하고 있다.

이름만 다를뿐 그 취지나 내용은 엇비슷하다. 이 후보의 1호 소확행 공약은 ‘오토바이 소음근절’, 윤 후보의 1호 심롱 약속은 ‘택시 운전석 칸막이 설치’였다.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각론’에 해당 하는 분야별 공약이 주를 이룬다.

대선일에 다가설수록 점차 표를 의식한 ‘표플러즘 경쟁’ 양상으로 흐르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현재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소확행 공약은 51개에 달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탈모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 아이디어가 폭발적인 호응을 얻자 이를 ‘소확행’의 일환으로 포함, 현재는 분야 등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두루 아이디어를 받은 뒤 공약화하겠다고 민주당의 구상이다. 최근에는 공보단을 중심으로 한 ‘소복소복’ (소시민의 행복·소소한 행복) 발표도 시작됐다.

대변인이 주로 발표하는 ‘소복소복’ 시리즈는 이 후보가 이미 발표한 정책 중 여성과

가족, 보육과 취업 등 ‘일상’에 보다 초점을 맞추자는 기획으로, 지난 17일 부모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는 상환 학자금 제도 운용과 대상 확대,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의 무효화했다고 하는 내용의 8번째 발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경기지사 시절 자신이 이행했던 정책을 소개하는 ‘명확행’ (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부동산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무한책임부동산’ 등의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도 미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심롱 약속’은 현재 17번째까지 나왔다. 대가족이 재혼한 관공 사살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용하면 이를 대기업의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 등이다.

심롱 시리즈의 시작은 지난 22일이었다. 주말을 제외하면 첫 발표 이후 사실상 1일 1건을 발표할 셈이다.

지난 8일부터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

책번부정이 함께 출연하는 ‘59초 쇼츠 (shorts)’ 공약 영상 발표도 시작됐다.

이 역시 전기가 충전 요금 동결, 체육시설 소득공제, 대중교통비 백신 보험 적용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이 주요 내용인데, 영상 미디어에 친숙한 2030세대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집중하는 게 특징이다.

영상마다 마지막에 등장한 윤 후보가 이빨배를 씹어대며 “공약의 성과를 때때로 뒷안연기를 하거나 (공약) 후보에게 보고할까요?”라는 말에 “좋아! 빠르게 가”라고 외치는 모습도 화제를 모았다. 현재까지 총 14편이 공개됐다.

이런 ‘마이크로 타겟팅’ 경쟁은 여야 진영을 막론하고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중도층과 2030 세대를 집중 공략해야 하는 이번 대선 구도의 특성과 맞닿아 있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여야 경쟁 주자들의 생활공약 경쟁에 비탈을 끼쳤다.

경남 지역을 방문 중인 안 후보는 전날 지자체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의 정책 화두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이 걸린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도 지금 거둔 양당 후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며 “정말로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 설 中企·소상공인 36조 지원

정부, 소상공인에 10조원 규모 최저금리 대출 공급  
민기대 대출 내달 3일로 자동 연장...연체이자 없어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권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36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저금리 대출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내용이 담긴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며 은행권은 2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정에서 특별저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신규 대출은 각 은행 지정에서 상담하면 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8조4000억원)과 은행권 기존 대출(43조6000억원) 민기대 연장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1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들 소상공인은 신용도에 따라 1~15%의 최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나이스(NICE)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중·고신용 소상공인은 2일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저신용(신용평점 745점 이하) 소상공인의 신청·접수는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전국 37만개 중소기업(연 매출 5억~30억원)은 별도 신청 없이 설 연휴에 발생한 카드결제대금을 내달 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내일에 대출 민기, 카드대금 납부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풀

이된다면 민기가 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 민기 연장 시 별도 연체 이자 부담은 없으며, 오는 28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설 연휴 중에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요일이면 2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된다. 매매 대금 결제 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 등은 28일에 매도했다면 대금을 당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설 연휴에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점종류(인출금, 신권 교환 등)를 설치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현관,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설 연휴 휴무 사항, 민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 금융회사와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등 보안·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송도 럭셔리 SK VIEW 투시도.

<부동산AD>

<SK에코플랜트 제공>

## SK에코플랜트, 인천 '송도 럭셔리 SK뷰' 분양



SK에코플랜트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6-1 일원에 분양하는 '송도 럭셔리 SK뷰(송도 Luxe Ocean SK VIEW)'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지난 21일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6구역 A9블록에 들어서는 송도 럭셔리 SK뷰는 지하2층~지상40층, 아파트 7개동, 총 1114가구로 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는 ▲84㎡ 1002가구 ▲130㎡ 88가구 ▲88㎡ 87가구 ▲96㎡ 27가구 ▲97㎡ 27가구 ▲104㎡ 27가구 ▲105㎡ 27가구 ▲137㎡ 27가구 ▲139㎡ 27가구 ▲141㎡ 27가구 ▲143㎡ 2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청약접수 기간은 2월 7일 1순위(해당지역,기타지역), 8일 2순위 접수수행하며 청약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2월 14일이며, 계약 체결은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입주 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556만원이다.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되며 분양 홈페이지에 마련된 세대 유니트(84㎡, 84㎡ D) VR(가상현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해바다와 송도 랜드마크시티 인프라를 담은 명품 생활권

송도 럭셔리 SK뷰가 들어서는 6공구는 8공구와 함께 랜드마크시티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108층 빌딩과 대관람차,해빈 테마파크 등 랜드마크 상점 시설들이 들어서며 국제도시 위상에 부합하

는 새로운 명소와 문화복합시설이 건설될 계획이다.

송도 럭셔리 SK뷰는 옆으로 서해바다 해안가를 따라 오션뷰를 품은 입지로 집에서 바다 일몰과 인천대교 조망을 즐길 수 있다는 특징점을 갖추고 있다. 일부 타인에는 오션뷰 특화 평면 설계가 적용돼 이른 발코니(테라스)도 마련된다.

단지 주변에는 주거 편의를 높여주는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연수JC와 송도JC를 통해 제2경인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제3경인고속도로도 가까이 차장으로 서울 및 수도권 곳곳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GTX-B노선,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송도트램 등 신규 교통 확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쇼핑 시설도 풍부하다.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부터 송도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스트리트 등 복합쇼핑몰까지 송도 내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 추가로 롯데몰송도, 신세계백화점,이랜드 등 쇼핑몰이개발될 계획이다. CGV, 메가박스 등 문화시설과 랜드마크시티호수

변공원,센트럴파크,제너럴하우스CC 등 녹지시설에서 문화 및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다. 송도중앙도서관,오페라하우스뮤지엄,송도세브란스병원 등 다양한 문화복합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생활 인프라가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송도 내 체트워송도국제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초·중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해 도보권 내 학세권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풍부한 자연 조경과 함께하는 쾌적한 주거 공간

송도 럭셔리 SK뷰는 남향위주 단지배치로 채광을 극대화하는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실내 공기질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공기를 개선하는 자동환기 시스템(유상)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며,단지 내에는 '인재의 숲', '비오토피아 정원', '센트럴 그린파크', '탄소저감숲'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단지 곳곳에 화화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입주민 편의시설로는 어린이집, 키즈카페,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존, 피트니스, GX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된다.

SK에코플랜트 분양관계자는 "송도 럭셔리 SK뷰가 들어서는 랜드마크시티는 송도국제도시를 상징하는 고급 주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며, "오션뷰와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브랜드 아파트를 선보여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번호:1533-6800  
홈페이지:www.sksc.co.kr  
/인원

## 경기도,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경영능력 향상 지원  
시제품제작·디자인 설계·마케팅·홍보·판로개척 등

경기도는 올해부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여성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고자 경영역량 강화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잠재력 높은 예비·초기 여성창업기업에 대상으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펼쳐 사업화와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신규 도입했다.

도는 시제품 제작, 제품디자인 및 설계, 홍보 및 마케팅, 국내외 인증획득, 판로 지원 등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업체 1곳당 최대 1000만원 내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입주 여성기업 중 성장성, 안전성, 기술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총 27개 내외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해당 기업들과 1:1로 연결해 효과적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발표 기술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정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 센터를 통해 도내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100개 사 내외를 선정해 '경영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여성기업들이 기업을 경영하며 직면하는 어려움과 선택의 기로에서 문제를

### 강원도, 올 기업투자촉진지구 2곳 선정

강원도는 투자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의 투자유치 촉진 활성화를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평창, 속초 2곳을 2022년 기업투자촉진지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서는 지역 내 산업단지·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개별입지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소외되었던 도내 지역 선정에 중점을 뒀다. 특히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소외되었던 도내 지역 선정에 중점을 뒀다.

이번 선정은 지역투자촉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강화책이자 한편으로는 일부 지역의 지속적인 보조금 의존지원을 방지하고자 개성별인을 마련한 것이다.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영 능력 향상을 도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높여주는 의도다.

최신 문제해결 능력 및 실무역량 강화를 도울 '경영능력 향상교육' 경제·경영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 초청 역량강화 특강', 여성기업 간 교류 협력의 장인 '여성기업 네트워크 데이' 등으로 구성해 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대상지 2곳은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총 3년 동안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이전 등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혜택을 제공한다. 입주 기업에 대해 기존 지원 비율에 5% 추가 지원과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이전 시설·증설기업에 대해 패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등 1개를 선택 지원한다.

이번 선정은 그 간 낙후된 교통 인프라와 생산인구 부족 등으로 인산했던 지역의 기업투자 불모지 이미지에서 벗어나, 강원도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진/김영민기자 yungk@jeonmae.co.kr

함안의 명품, 함안꽃감과 함께  
건강하고 달콤한 설연휴 보내세요!

# 근하 신년

문의번호:1533-6800  
홈페이지:www.sksc.co.kr  
/인원

###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성수)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술인에게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고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유효하며 가구 소득이 중위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은 올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이메일 또는 문화재단(삼각산로 85 3층)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확인 뒤 3월 초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 송파구, 재난안전 '3관왕'...구민 안전 최우선

## 재난안전 종사자 교육·대규모 공연 방역점검·재난대비 합동훈련 기관 표창 박성수 구청장 "구민의 안전 최우선에 두고 행정력 집중...노력 인정받아"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난해 재난안전 관련 3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관왕의 성과를 올렸다. 21일 박성수 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 대규모 공연 방역점검, 재난대비 기관합동 훈련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교육이 힘든 상황 속에서 비대면 화상 교육 등 대체 교육 방안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수율을 100%로 유지해 재난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해당 표창 수상은 전국지자체와 공공기관 중 구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남교육청 3곳뿐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공연장 안전점검에 힘쓴 노력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별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특별 표창 수상은 전국에서 송파구가 유일하다. 구는 관내 정규 공연장의 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 및 대규모 행사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기여했다. 특히, 정부의 대중문화 공

연 방역지침 기준 및 거리두기 단계기준 변경에 따라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송파구 대규모 공연 방역지침 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기도 했다. 구는 또, 송파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대비 상시 훈련을 실시해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상시대응체계 구축에도 기여했다. 가상훈련을 통한 사상자 및 이재민 발생에 따른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현장 실천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박성수 구청장은 "재난안전분야 3관왕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올해도 코로나19와 더불어 중대재해 등 다양화되는 재난상황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창욱 기자 parkch@jeonmae.co.kr**



박성수 구청장이 대규모 공연장이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 구정 이모저모

#### 에이즈검사 연중 무료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가 늘어난 중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를 20년째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강남구보건소는 20여 년 전부터 시작해 에이즈 검사를 꾸준히 실시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건사각 지대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구보건소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1402건, 2020년 500건, 2021년 485건의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며 매년 10명 인구의 양성자를 확인했다. 에이즈는 익명 검사가 필수지만 일반 병·의원엔 절차상 비밀보장이 어려워 에이즈 위원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구보건소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방문 즉시 검사가 가능해 환자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남구보건소는 30분이 소요되는 신속검사를 시행하며, 키트도 양성반응이 확인될 경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양성 여부를 판단한다.

#### 버스정류장 80곳 온열의자 추가 설치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겨울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가로변 버스 정류장 80곳에 온열의자를 추가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에는 구비 2억 6000만 원이 투입됐다. 관내 승차대가 있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80곳에 추가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관내 181곳의 가로변 버스정류장에서 온열의자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민 편의를 높였다. 온열의자는 지난 18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으며, 외부온도 18도 미만 시 온열이 공급돼 겨울철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달 예정이다. 매년 추위가 시작되는 11월부터 3월까지 매년 온열의자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버스 운행시간에 맞춰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또한 구는 여름철 주민 편의를 위해 온열의자가 설치된 버스정류장 181곳에 쿨링의자를 설치할 계획이다.

#### '어르신 자서전' 영상 제작 온라인 공개

서울 종로구가 어르신들의 추억이 엮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삶의 여정을 들려주는 '영상자서전'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1 지역문화진흥사업 N개의 서울'의 일환으로 대학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연극인과 관계자들의 모임인 '대학로에(愛)', '대학로인(人)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어르신 영상자서전'은 총 7편으로 구성돼 종로문화재단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현재 총 4편을 업로드했다. 구는 지역 어르신들의 보석 같은 지난날에 주목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자 이 사업을 시작한 만큼 이달 말까지 7편 모두를 종로문화재단 유튜브에 업로드할 계획이다.

#### 내달부터 비대면 정보화교육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주민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내달부터 비대면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유튜브 채널 '중구 온라인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은 재미있는 세상을 여는 창원도, 재미있는 세상을 보는 창 옛지, 재미있는 세상을 연결하는 스마트폰 등 입문자 과정을 화요일과 목요일은 PC로 생활을 스마트하게 OA 스타트업! 한글, DIY 픽슬러로 좋은 사진 만들기 등 심화 과정으로 진행한다. 각 과정 당 8회로 구성되며, 회당 수업 시간은 2시간 30분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 구민정보화교육 커뮤니티(https://cafe.naver.com/fitjunggu)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중구 정보화교육콜센터(☎1644-7128)로 하면 된다.

# 서초구, 공공기관 부패방지 서울 자치구 중 '최고 등급'

## 국민권익위 우수기관에 선정...평가항목 2개 만점받아

서울 서초구(구청장권한태형 천정욱)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항목 가운데 부패방지 제도 운영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되는 2등급을 받았다. 특히 부패위험 제거 노력 항목에서는 도급공사비 1억 이상 증액된 공사를 대상으로 내·외부 위원이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사

전에 검토하는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감사담당관이 공사현장을 찾아가 시공업체와 발주부서 간 중간자 역할을 하는 '청렴 트라이앵글제도'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그동안 구는 주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및 청렴정책을 위해 ▲구청 민원을 경험한 주민을 대상으로 불편사항, 진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청렴콜' ▲도급액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한 '청렴문자 발송'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청렴콘서트'와 '청렴키스컬팅 제도'에 참여하는 등 다

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구는 지난해 12월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받은 바 있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성과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이루고자 우리구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및 청렴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서초'를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문석진 구청장과 왕호어성(Wang Hesheng) 하이덴구장이 개정 체결된 두 도시의 자매결연 협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 서대문구, 중국 베이징시 하이덴구와 교류협력 강화 협정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중국 베이징시 하이덴구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개정 체결식은 기존 교류협력 항목인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체육, 행정, 도시건설 외에 보건과 인제가 추가됐으며 '교류 협력 사업과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 강동구, 공공기관 부패방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등급 청렴교육·취약분야 특감등 시책 추진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하면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5년 연속 간부 청렴도 평가 실적을 활용해 조직 내 청렴정책에 대한 관심과 반부패 분위기를 확

산하고,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전 직원 청렴교육과 간부공무원 청렴서약,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된 감사담당관과 함께 하는 청렴퀴즈(청렴의 날 운영), 민간보

야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공정한 공직사회를 위해 직원 모두가 다방면에서 애써온 노력의 성과"라며 "다시 한번 청렴의 의지를 다지고 '청렴한 강동, 신뢰받는 강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 '성북마을아카이브' 자치분권어워드 동상 수상

## 자치구 최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주민 중심의 기록문화 정착 등 높은 평가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모)는 '성북마을아카이브'가 대한민국을 키우는 힘, 지역이 브랜드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1 자치분권어워드'의 지역브랜드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2021 자치분권어워드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대학, 16개 지역MBC의 공동 주관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우수사례를 공

모로 선정해 시상했다. 구와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균)이 함께한 '성북마을아카이브(https://archive.sb.go.kr)'는 2020년 전국 자치구 최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서울시 자치구 최초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 제정, 주민 중심의 기록문화 정착 등 마을기록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북마을아카이브는 성북의 역사·문화자원, 주민의 생활에 관한 기록들을 수집하고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에 보관해 누구든지 쉽게 성북의 마을기록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홈페이지로 주민이 마을기록 발굴과 역사문화 콘텐츠를 생산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지식플랫폼이다. 현재 약 9000여건에 이르는 사진, 영상, 간행물, 구술 채록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마을기록을 보관·제공하고 있으며, 성북에서의 독립운동과 문화 콘텐츠를 개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박창욱 기자 parkch@jeonmae.co.kr**

# '자치분권잼버리 2021 자치분권어워드' 개최

## "자치분권이 문화가 되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충실할 것"

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서울 도봉구청장)은 "2022년은 개편된 지방자치법 시행 원년인 만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이 문화가 되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광명시 광명극장 및 평생학습원에서 최근 열린 '자치분권잼버리 2021 자치분권어워드'에 참석, 자치분권어워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지역브랜드, 인적자원으로 나뉜 지역자원을 육성하고, 자치분권 인적자원개발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본 행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고의 정책을 겨루는 2021 자치분권어워드, 지역브랜드 전시, 정기총회 및

안전차리 등이 진행됐다. 2021 자치분권어워드는 정책-주민참여 부문, 정책-공공성 부문, 지역브랜드-도시브랜드 기반구축 부문, 지역브랜드-신성장 미래동력 부문, 인적자원-인적자원개발 부문, 인적자원-교육 부문, 총 6개의 부문으로 치러졌다. 자치분권어워드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는 한편, '지방자치 30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프로그램을 통해 2월 중 방송된다. '지방자치 30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16개 지역 MBC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대학, 자치분권위원회가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 구로구, 행안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장관상

## 전국지자체 상위 5% 이내 4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상)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가산점 3점을 추가로 받아 총 103점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5% 이내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S등급을 획득하며 4년 연속 최고등급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스스로 확인 점검해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까지 내부통제 활동, 운영기관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구는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행백-e시스템', 복지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담당자가 스스로를 사전점검하는 '자기진단제도', 직원의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는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투명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 부서별 청렴 업무표준 중 관리하는 청렴인증제, 행정처분 전 실시하는 청문 절차에 읍부즈맨이 참여하는 읍부즈맨 청문 임회제도,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했다. 또 청렴문자, 모바일 설문, 청렴해피콜 등 제도를 통해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 금천구 '자치분권 어워드' 정책분야 금상

## 서울시 최초 어르신 편의점 운영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최근 광명사에서 개최된 '2021 자치분권 어워드'에서 서울시 최초 어르신 편의점 '착한상회'로 정책분야 금상을 수상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자치분권대학, MBC가 공동 주최한 자치분권어워드는 '대한민국을 키우는 힘, 지역이 브랜드다'라는 주제로 전국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30건을 먼저 선정하고, 2차 심사로 전문가와 국민참여단의 영상물 심의를 거쳐 수상 자치단체를 결정했다. 구는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금천시니어클럽'을 출범, 2년 만에 보건복지부 평가 노인일자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 동작구, 180억 원 규모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활동 촉진을 위해 25일 총 180억 원 규모의 동작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작사랑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최대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지난 해 11월 발행 당일 10분 만에 매진되는 등 인기가 높다. 올해부터는 판매대행사 변경으로 기존 앱 대신 새로운 앱 설치가 필요하다. 이번 구매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 전용에

플리케이션인 서울페이+를 비롯해 티머니페이, 신한출, 마니트리에서만 가능하다. 기존에 구매를 지원하던 '비블레토펀드', '체크페이' 등 앱에서는 구매할 수 없으며, 기존 앱에서 쓰던 동작사랑상품권 잔액은 신규 앱을 설치할 경우 3월 1일 자동 이관될 예정이다. 이번에도 발행되는 상품권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구매(신카드만 해당)할 수 있으며 충전 단위 역시 1만원 단위로 통일되어 주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소셜벤처와 손잡고 청년 내일찾기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청년내일찾기' 사업에 참여할 8개의 소셜벤처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모 대상 기업은 성동구 소재 소셜벤처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인건비(월 187.5만 원 기준)의 90%인 월 최대 168만 원을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달 중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해 일자리를 매칭하고, 청년들은 각 소셜벤처 기업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업무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사회활동가 육성과 같은 지역 특화 사회적 경제 연계 등 사회공헌 분야를 특화했다.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서, 제출서류, 접수방법 등은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구청 이모저모

'주민 미디어 활용 교육'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주민 미디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나도 타 볼까! 메타버스 ▲스마트폰 영상 편집의 기초, 키네마스터 활용 등 두 가지 강좌로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영된다. '나도 타 볼까! 메타버스' 강좌는 오는 2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주 2회, 총 8회 진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영상편집의 기초, 키네마스터' 강좌는 오는 2월 8일부터 한 달간 주 2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된다.

관심 있는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강서구청상미디어센터 누리집(gsmmedia.gangseo.seoul.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좌별로 각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는 1만5000원이다.

청년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효용을 얻고 있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는 만 19~29세 청년이 중개 보수 감면에 동의한 지역 중개사무소에서 7500만 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일방주택은 20~25%,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45~55% 중개 보수 감면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다.

현재 구 중개사무소의 약 46%인 518곳이 동참했으며, 청년 587명이 650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구는 사업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홍보용 표창 배부·부착 등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사업 참여 중개사무소 위치는 앱 '스마트 서울맵'이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미디어 창작 공간 '상상나무' 운영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역 내 구립도서관 최초로 마포소극나무도서관 지하 1층에 미디어 창작 공간 '상상나무'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상나무'는 1인실, 3인실, 크로마키 이용이 가능한 5인실 스튜디오까지 총 3개 스튜디오와 1개의 편집실로 구성돼 있다. 스튜디오 안에는 디지털카메라와 조명이 구비돼 있으며, 편집실에는 7대의 PC가 마련돼 있다.

마포소극나무도서관은 '상상나무'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의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미디어제작 콘테스트 개최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상나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K-도서관 사업'에 선정돼 조성된 곳으로 타 도서관과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역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2022년 상반기 해맞이역사도서관 특화 프로그램으로 '역사 인물 아카데미'와 '어린이 열매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역사 인물 아카데미'는 역사, 문학, 예술,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과거로부터 오늘날의 해답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열매교실'은 올해 처음 신설된 초등학교를 위한 역사 특화프로그램이다. 어릴 적부터 도서관을 가까이하며 자유롭게 성장, 각자의 소중한 열매를 맺길 희망한다는 뜻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수업으로 구성됐다.

양천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해맞이역사도서관 메뉴)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각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맞이역사도서관(☎02-2693-59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년대비 4.9% 성장...서울시 전체 3위 신내·양원지구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등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18년) 대비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3위, 동북권 자치구 중 1위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발표한 2019년 기준 서울 지역내총생산(GRDP)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구에 따르면 구 전체 지역내총생산은 전

년 4조 4530억원에서 4조 7420억원으로 전년대비 4.9% 성장해 2019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3위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1131만원 대비 1217만원으로 7.6% 상승했다.

신내 및 양원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과 패션복제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해 GRDP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영등포구, 5개 분야별 '설 종합대책' 추진

방역·재난관리·교통편의·생활불편 해소·물가안정·소외이웃 지원 등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정상 운영·분야별 대책반 가동...구민 안전 확보 총력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설을 맞아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1일 채현일 구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방역과 각 분야 종합대책 추진에 힘써,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교통안전 강화 ▲생활불편 해소 ▲명절물가 안정 등의 기초행정에서부터 ▲코로나19 및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구민안전 확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외이웃 지원 총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분야별 대책반과의 긴밀한 연락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

이다. 먼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정상 운영한다. 단, 임시선별검사소 2곳은 일요일(1월 30일) 미운영하며, 오후 1시까지만 운영된다.

또한 안전사고·화재·폭설 등 재난상황의 발생에 대비해 주요 도로시설물과 공사장 9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통시장과 관내 상점가에 소방안전 시설을 보강 설치해 화재·도난 등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주요역사,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학교 주차장 4개소와 공영주차장 32곳(노상 주차장 29곳, 노외 주차장



중랑구 2017~2019 지역내총생산(GRDP)(좌)·2019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우). (중랑구 제공)

구 관계자는 분석했다. 총부가가치는 부동산업이 18.1%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도매 및 소매업 13.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신용보증지원

업체당 3억원 이내...연리 0.8% 조건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원을 확보하고 용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다.숙박·음식점업, 주점업, 담배·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구는 연리 0.8% 조건으로 작년 기준 대출자에게도 연장에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등 2가지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이며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10.3%로 그 뒤를 이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중이 전년 대비 12.3%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업 비중 증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올해 착공 예정인 면목행정복합타운과 중랑패션지원센터, 23년 착공할 중랑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의 경제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신용보증지원

등 담보 능력이 있는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용자 신청은 구 홈페이지 공고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자금계획서 등을 첨부해 구청 일자리경제과(☎02-351-6834)를 방문 제출해야 한다.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숙박·음식점 업주 등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보증규모의 특별신용보증 추천도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로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심사를 진행할 경우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신용보증서를 통해 신용은행에서 용자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유류 주점, 주류도매업, 부동산업 등 업종은 제외된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동대문구의회,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올해 첫 임시회 개최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우)는 21일 올해 첫 임시회인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후연 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들었다.

최 부구청장은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라는 민선7기 구정목표 아래, 친철·친량·소통·안전을 기반으로 으뜸 보육과 교육, 복지건강, 문화와 환경, 그리고 생활안전 도시 등 총 7개 분야의 역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 으뜸보육·교육도시'를 위해 올해부터 유치원에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고생은 30만 원의 입학준비금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 '복지건강 도시'를 위해 동대문구의 복지이념이 오롯이 담긴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모두누리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경제도시'를 위해 휘경동 역세권 청년주택에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청량리역 광장에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활동 등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성장도시'를 위해 청량리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랜드마크 조성, 이문2동 복합청사과 공영주차장 건립 건설

을 추진해 도시 인프라 확충, 담심리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사업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화도시'를 위해 담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 조성과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등 문화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환경도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전가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 등 생태와 환경 보전에 박차를 가하고, '생활안전 도시'부문에서는 도시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구축 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이현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18년 출범했던 제8대 의회의 임기도 이제 5개월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께서는 지난해에 논의했던 사업들이 신년도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함께 제시하는 등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설맞이 '노원사랑상품권' 24일 발행...180억 규모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올 들어 첫 노원사랑상품권을 오는 24일, 18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구매할인율은 기존에 적용했던 10%를 유지한다. 구는 위촉된 소비심리를 살리고자 자체 재원으로 2%를 부담해 할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할인가매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1인당 월 70만원(보유한도 200만원)이며,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올해부터 변동되는 사항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상품권 구매 가능 어플이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티머니페이, 신한솔, 머니트리 4개로 변경됐다. 기존 어플인 비

플레로페이, 체크페이 등은 24일부터 신규 구매가 불가능하며, 기존 구매한 상품권이 용은 가능하다.

상품권 권종도 1만원, 5만원, 10만원 3개 권종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만원 단위 충전 방식으로 변경됐다.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구매해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잔액환불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적으로 구매취소가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음식점, 약국, 편의점, 학원 등 제로페이 가맹점 1만 5085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중로구의회, 이웃 사랑 실천하는 '중로구 효행본부'에 감사패 수여

서울 중로구의회(의장 여봉우)는 최근 봉사나눔의 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특히 효성계승으로 여는 공경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중로구 효행본부 임원진에게 감사패 수여했다. 전원남과 정예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도봉구의회,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 진행

박진식 의장 "도봉구 예비문화도시는 많은 분들 노력 덕분"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구의회 3층 제1위원회의실에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모임'(가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제안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간담회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 의회-집행부-시민이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해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날 19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진식 의장과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강철용, 김기순, 이영숙, 이성민 의회와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및 팀장, 문화전문가, 문화도시 추진사업 참여 구민들, 소관부서 구청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박진식 의장은 인사말에서 "도봉구

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성과는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다. 문화재단의 사무국 해체 등 내부문제도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걱정이 앞서지만 간담회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참석자분들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구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체계를 갖춘 도시를 범정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도봉구는 작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4차 예비문화도시 11개 지자체에 선정됐고, 올해 말 법정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위해 1년간 주민기회100만, 존중문화박람회, 모두의 배프 등 9개 예비사

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5년간 최대 200억원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문화사업의 연속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사회자의 간담회 취지 소개와 의장 인사말씀, 참석자 소개, 시민발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는 도봉구가 예비문화도시에서 본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을 겪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들을 꿈꾸는 시간이라 생각했으면 한다. 오늘 논의한 내용은 깊이 숙고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문화도시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재의요구 우려 표명

"대안교육기관 지원하지 않으면 심각한 교육권 침해 소지 있다" "오 시장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권 보호 저해 우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1일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법령 제정 취지인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권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고, 심각한 예산부족으로 2022년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지 않으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교육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서울시의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힘으로써, 중앙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청 등록을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지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서울시 결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 기피현상'은 법령의 제정 취지를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런 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법령 제정 취지인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권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고, 심각한 예산부족으로 2022년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지 않으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교육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 전환의 시대에 교육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생각을 재고해야 할 쪽은 서울시의회가 아니라 서울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소래포구 '대한민국 수산대전' 열려

인천 남동구가 24~28일까지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다.

이강호 구청장은 "소비자는 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해 알뜰한 설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고,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소래포구가 소비자들과 상인이 상생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설 성수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행위 단속

인천시가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 표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설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에 예상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시(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 공항지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반을 편성 실시한다.

일반 유통·판매업은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음식점의 경우 납치, 조피불찰, 참돔, 미꾸라지 등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 원(1차), 60만 원(2차), 100만 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윤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설 명절 대비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방문

차주택 인천 부평구청장은 1월부터 본격 시작한 '부평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맞춰 각 수행기관 현황을 방문, 참가자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구의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229억 원으로,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신청을 받아 총 5020명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일자리 5110명, 지역사회 돌봄과 안전 등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사업 550명, 노인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시장형 일자리 210명, 취약업종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사업은 폐의약품 분리수거 사업과 취약 노인 가정 방문사업, 고령 노인들의 금융 업무를 돕는 사업, 보건소 방역지원단 등 총 10개다.

차주택 구청장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인구에 유입된 만큼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업연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설 앞두고 가스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천 계양구는 설을 앞두고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1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중심의 가스 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 주요 대상은 주민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3개소), 중구로 점포(7개소) 등이다.

구는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의 정상 작동 확인, 가스 밸브 노후, 배관 매설, 고정상태 등 시설 및 기술기준 적정 여부, 가스 누출 여부, LPG용기 보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 결과 나온 위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설 연휴 응급환자 발생 대비 비상 진료체계 가동

인천 연수구는 설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일선 의료기관, 약국과 협력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 일반 환자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보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기관,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보건소에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비상 진료 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내, 근무 여부 확인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

이에 구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 8개소, 의원 191개소, 약국 108개소를 비상 진료 기관·휴일 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해 주민 진료와 함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보건소 누리집에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현황을 게시할 예정이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119)에서 24시간 전국 당직 병·의원, 약국안내, 응급의료상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 세계 5대 갯벌·섬 168개 등 해양생물자원 풍부한 '환경특별시 인천' 해양환경 부서 전국 최초 신설

한강하구 등 쓰레기로 환경관리 필요 37개팀 운영...갯벌생태계 복원 등 추진

인천시가 해양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인천시는 세계 5대 갯벌 709.6km(전국 2487km 대비 28.5%), 해안선 1079km(전국 1만4962km 대비 7.3%), 섬 168개(유인 40개, 무인 128개), 해양보호구역 및 탐사수역지, 저어새 번식지, 물범 서식지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수도권의 해양도시이다.

그러나 한강하구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와 서해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해양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어 해양환경 보호 및 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해양항공국 소속 해양환경과를 신설해 해양환경정책, 해양환경정화, 해양생태지질 등 3개 팀으로 운영한다.

주요 업무로는 해양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갯벌생태계 복원, 특정도서 관리, 해양환경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전략과제 발굴,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쓰레기 수거·보관·처리시설 설치,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저질공원 및 갯벌 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인증 및 등재, 생태관광활성화 구축 등이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양환경 분야 전담 부서가 전국 최초로 신설된 만큼, '환경특별시 인천'에 걸맞는 해양도시로서 해양환경보호 및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국네이비스, 인천시에 국가보훈대상자 기부물품 전달 조태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21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국네이비스 인천지역우회회, 국가보훈대상자 기부물품 전달식'에서 유정화 국네이비스 인천지역우회회장으로부터 기부물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 웅진 섬 주민 대중교통 이용 개선된다

인천 웅진군은 원도심 활성화와 연안부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평연안부두선(부평역~연안부두, 약9.9km) 및 제물포연안부두선(제물포역~연안부두, 약7.7km) 등 8개 노선으로 총 87.79km 길이에 철도망 건설에 2조 88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예정인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웅진군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4일부터 장래 폐선 예정인 석탄부두선(인천역~석탄부두)을 활용한 트램(도시철도) 도입으로 획기적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제물포역~연안부두 간 트램선지 계획을 구성하고 인천시에 반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했었다.

부평연안·제물포연안부두선 등 국토부 승인... "시내 접근 용이"

특히, 연안여객터미널의 열악한 대중교통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웅진군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4일부터 장래 폐선 예정인 석탄부두선(인천역~석탄부두)을 활용한 트램(도시철도) 도입으로 획기적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제물포역~연안부두 간 트램선지 계획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망의 최상위 계획으로 시도정부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수립한 국토부장관이 승인한다. 10년 단위 계획으로, 5년 주기로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신청과 조사,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단계를 거치면 빨라오 오는 2028년께 준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 트램선지 완공 시 섬 주민과 관광객은 연안부두여객터미널에서 트램선지를 이용해 신속하게 인천 시내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대중교통 체증 해소 및 관광 소득 증가로 이어져 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 이원재 경제청장 "주요 기반시설 건설사업 공정관리 만전"

송도국제도시 대형 공사 현장 찾아 안전 관리 점검

이원재(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1일 송도국제도시 대형 공사 현장을 찾아 주요사업추진 현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청장은 송도 워터프런트, 8공구 생활기기를 자동집하시설, 6·8공구 기반시설 등 송도국제도시 핵심 인프라 건설 공사 현장과 대방디엥시티 디에트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최근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등 건설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 청장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건경제자유구역(IPEZ)을 자족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주거와 교통, 생활 인프라 건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 기반시설 건설 사업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방디엥시티 디에트르 공동주택 건설은 현재 공정을 30%로 끝 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8공구 생활기기를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현재 시공 중으로 오는 3월 준공예정이다.

친수공간 조성과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성되고 있는 워터프런트 1-1공구는 5월, 6·8공구 기반시설은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 인천항 컨 물동량 지난해 335만TEU 역대 최대

중국·홍콩·일본 증가세 뚜렷

2021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직전년도 대비 2.5% 증가한 335만 3781TEU로 집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9만6317TEU를 처리하면서 이전 연간 최대기록인 2020년 327만TEU에서 8만TEU 증가한 실적이다.

IPA에 따르면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수입 168만 9128TEU, 수출 160만 2148TEU로 2020년 대비 4.1%, 2.0%씩 각각 증가했다. 환적과 연안 물동량은 5만 4309TEU와 8196TEU를 각각 기록했다.

국가별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은 중국(97만 3801TEU), 홍콩(5만 3487TEU), 일본

(4만 5743TEU)이 각각 4만 1054TEU(4.4%), 1만 3407TEU(33.6%), 9101TEU(2.8%)씩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 57.7%, 베트남 13.2%, 태국 4.9%, 인도네시아 3.4%, 홍콩 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요 5대 국가의 컨테이너 수입은 전체 수입 물동량의 82.3%를 차지했다.

국가별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에서는 중국(101만 9625TEU), 베트남(13만 8353TEU), 대만(7만 3244TEU)이 각각 4,792TEU(0.5%), 9923TEU(7.7%), 8472TEU(13.1%)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 63.6%, 베트남 8.6%, 대만 4.6%, 홍콩 3.0%, 말레이시아 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요 5대 국가 컨테이너 수출은 전체 수출 물동량의 81.4%를 차지했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 인천 최대 12억 확보

도로포장·부속시설 보수 등 지원

인천 서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입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인천 최대 예산 12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용감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재난 예방 시설물 보강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구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946곳에 84억7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서구는 예산 12억 원을 확보

해 인천 최대규모로 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또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사용감사일 기준 20년 이상 지난 임의 관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를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으로 20년 이상 지 임의 관리 단지 공동주택에 무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보수보강 방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이며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 영흥발전본부, 전통시장에 친환경 LED등 설치 지원

총 1억원 규모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의 지원으로 전통시장에 1억 원 규모의 친환경 LED등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LED등 설치에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가 인천시, 모금회가 전통시장 친환경 LED등 설치를 통한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 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지원했다.

지난 2020년에는 부평 3개 시장 공영주차장에 LED등을 설치했으며, 지난해는 일

신시장, 동인천중앙시장, 축산물시장 개발 상가에 총 1억 규모로 LED등을 구축했다.

이상규 영흥발전본부 본부장은 "코로나로 힘든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좀 더 밝아진 일대에서 웃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상범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 인천교육청, 2022학년도 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 발표

남학교 31개교 등 총 74개교

인천교육청은 21일 2022학년도 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식을 진행하고, 배정학교를 발표했다.

올해 지방 순위별 배정 비율을 보면 지원자가 1지방 학교에 배정된 비율은 85.9%로 나타났으며, 1~5지방까지 배정된 비율은 98.5%로 전년 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 방식은 선착순지원 후추첨제 방식, 학교별 제1지방 지원자 정원 미달 때 지방자 지원 1지방고 배정, 정원에 미달된 나머지 제2지방자 중에서 배정하며, 제2지방자라도 충원이 되지 않으면 제3지방 순서로 배정한다.

또 학교별 지방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자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정한다.

배정처리는 인천고입포털시스템에서 컴퓨터 추첨방식을 통해 본인이 지명한 순서 순서로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출산중학교와 인천교육청 고등학교입학전형포털(https://isatp.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소집은 24일 오전 11시에 학교별 대면,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 이학재 "해수부, 과한 행정통제로 IPA 독립·자율성 훼손"

인천시로 이양 주장

이학재(사진) 국민의힘 인천시장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 산하기관인 인천항만공사(IPA)를 인천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항만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 항만공사법을 제정했는데, 그 취지에 달리 IPA가 해양수산부의 지나친 행정통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IPA의 임직원 임명 때 낙하산 임명이 매년 벌어지고,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등도 항만위원회 자체의결로 추진 및 결정하는데 재약을 받고 있다.

이에 인천항만업계는 IPA 설립 이후,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증대돼 인천항만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실정이라고, IPA 운영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항만시설공사의 실사계획 조차도 인천시장이 아닌 해수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게다가 인천항의 항만개발 사업 시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며,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시는 영종도 준설토 매립장 개발과 관련, IPA에 인천시로의 소유권 이전 등의 의견을 냈지만 반번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인천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확고히 하고, 항만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항만관



리방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 산하기관 IPA가 인천시로 이양되면, 준설토 투기장 및 항만 재개발사업 때 재산이 중앙정부가 아닌 인천시로 귀속돼 인천항의 항만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장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인천항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개발계획은 인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소유권과 도시계획권을 넘기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부진한 내항 1·8부두 개발 역시, IPA가 인천시로 관리권이 이양되면 시민의 뜻을 모아 인천의 의지대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개발 관리를 통해서 항만과 원도심의 조화로운 개발 역시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PA가 인천항의 항만관리운영 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IPA를 인천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IPA의 관리권을 인천시로 이양, 인천항만 주권을 실현해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 인천교통공 노조, 제12대 김현기 위원장 취임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1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위원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행사는 이인회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김대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장, 김대훈 전국노조협의회 상임의장을 비롯 노동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12대 김현기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MZ세대의 대표로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자부심을 갖고 출근할 수 있고, 청년들이 만족하며, 시민에게 존경받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오늘부터 국제 비독 신에 단채전

경기 의정부시는 24일부터 국제 신에 비독대 환인 의정부 국제 비독 신에 단채전이 국내 신 발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간별인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고 의정부시 후원으로 개최되며 예산은 대면 대국으로 열리고 본선은 온라인 대국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내달 15일 의정부시 아일랜드 캐슬(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열리며 본선은 3월 3일부터 5일까지 풀리그로드로 펼쳐지는 가운데 우승상금 40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1500만 원이며 3위와 4위에도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에 앞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국기원 대회장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열리는 선별전에서 한국팀 본선 진출자 3명(남자 2명, 여자 1명)을 선발한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전 상품 확대

경기 파주시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을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전년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1억7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 지역 내 어린이집 332곳, 보육 교직원 3366명, 아동 13948명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한다.

기존 지원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건물), 화재배상책임 등 있었으며 올해 새롭게 추가 지원되는 특약은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비 특약, 제3차 치료비 지원,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풍수해 지원이다. 이로써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파주/ 임정일기자 imci@jeonmae.co.kr

방방곡곡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개시

경기 김포시는 '2022년 김포 방방곡곡 모바일 스탬프 투어' 서비스를 24일 개시한다.

2022년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목표 인원 1만명 이상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으며 기존 관광지 외 '문수산 산림욕장'을 추가해 더 많은 관광 명소를 알릴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휴대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올댓스탬프'를 검색해 어플을 설치한 후 해당 관광지에 도착해 어플을 실행하면 스탬프를 획득 하게 된다. 이때 방문지의 정보는 물론 가장 가까운 관광지를 순서대로 보여 주고 길안내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스탬프를 획득 할 때마다 참여 소감과 사진 등을 남기고 그 개수에 따라 기념품을 신청하면 소정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다.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시행

충남 홍성군은 '2022년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24일부터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군 내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1톤이상 이하(중형 승용·승합차)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신고 예정자 포함)이다.

특히 올해 사업은 기존 경유 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구매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보급 차량은 11대이며 지원금액은 대당 700만원을 정책 지원, 24일부터 신청접수 순으로 보급수량 소진 때까지 신청받는다.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대리점 등)을 통해 상담·계약 후 군 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성/ 최성교기자 schgi@jeonmae.co.kr

공익신고 활성화·신고자 보호 강화

충북 청주시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 범위가 467개에서 471개로 확대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도 늘었다.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범위는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법률학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없이 110 또는 1368, 수사기관, 관할 행정·감독기관, 청주시 감사관으로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익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및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6@jeonmae.co.kr

형성속행한우 올해 첫 흉공 수출 선적

강원 형성속행은 최근 올해 첫 수출분으로 안산, 체끝 등 635kg의 형성속행한우를 흉공으로 선적했다.

지난 2016년에 시작된 흉공 수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수출액은 35톤, 300만 불을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형성속행은 수출물량이 전년 대비 20% 신장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흉공으로 수출된 전국의 한우 수출량이 20% 감소한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올해부터 한우 두수 증가로 인해 한우 가격 조정이 예상되면서 한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형성/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동두천시, 도 일자리재단 이전 '난관 봉착'

예정부지 토양오염도 검사서 페놀·불소 기준치 초과 검출 시 관계자 '실무협의 등 의견조율 통해 차질 없이 이전 최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시 이전이 난관에 봉착했다.

도는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북부에 분산 배치,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소외지역에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 중이며 도 일자리재단은 지난 2020년 9월 동두천시 이전이 확정됐다.

이전 대상은 일자리재단 주사무소로 경영기획실, 고용성장본부 등 1실 2본부 1센터 약 13명 규모다. 당초 오는 3월경 착공

해 내년 8월 준공(지하1~지상4층, 총면적 5280㎡)이 목표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일자리재단은 현재 동두천시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전 예정부지인 캠프 남포(상패동19)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페놀과 불소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재단이 지난해 한국환경산업연구원에 의뢰한 토양오염 조사 결과, 2개 지점 54개 시료 중 '페놀'이 3개 지점(5.85mg/kg, 7.1

준 4mg/kg), '불소'가 2개 지점(536mg/kg, 기준 400mg/kg)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단은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정화가 확인될 때까지 토지매수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단은 해당 부지에 불법 성토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고 재단 노조는 최용덕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이며 시민들은 일자리재단 이전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일자리재단 이전 예정부지인 캠프남포는 지난 2009~2011년에 예산 90억 원을 투입, 국방부의 정화조치를 마쳤

다. 이후 시는 지난해 7월 63억 원을 들여 국방부에게 부지 일부를 매입했으며 그 외 캠프남포 남측 부지에는 2020년 6월 군관사가 신축돼 156가구가 거주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 성토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난 2011~2013년 동두천경찰서 신축과정에서 캠프남포 부지에 성토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부지 내 반입되는 사토에 대한 오염도 조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다. 또 2018년 같은 캠프남포 부지에 건설된 군관사 신축 공사 시 다량의 자연성(호박돌)이 확인, 이를 재단 이전 예정부지에 적치한 것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민 A씨는 "당초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의 취지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에 있었던 만큼,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재단 측이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충분한 정밀조사와 실무협의 등 의견조율을 통해 차질 없이 이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기(2020년 9월) 공공기관 이전지로 확정된 양주시는 지난해 5월 경기교통공사를 출범했고 양령시와 김포시는 각각 경기도시정상징진흥원과 김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지난해 12월 부 이전을 마친 상태다.

동두천/ 진영택기자 jyh@jeonmae.co.kr



충남 서산시의회는 최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중대재해예방법 적용·복지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서산시의회, 경제환경국·복지문화국·건설도시국 주요업무계획 청취

충남 서산시의회는 최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환경 및 노후산단 화학사고 예방 대책으로 중대재해예방법 적용과 복지사각지대 대책 마련 방안 등을 주문했다.

경제환경국 업무계획보고에서 조동식 의원(국민의 힘·서산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산사랑 상품권발행 관례를 확대하여 있어 지난해는 할인율을 5~10%로 오라기락 했다고 지적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복지문화국 업무계획보고에서 유부곤 의원(국민의 힘·비례)은 "코로나 여파로 조율증과 광항장애 등 위기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기존 행정체계로는 복지 사

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2015년에서 2016년도 사업계획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복지재단의 전문성이 결여됐다. 이제부터라도 전문성 있는 직제를 개편해 형식적인 배분 사업을 지양하고 통합 시민사회복지유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족한 복지 안전망을 개편해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도시국 업무계획보고에서 이연희 의원(무소속·인지면, 부춘동, 석남동)은 "도로변 아파트 방음벽설치 공사에 대해 A아파트 앞에는 지난해 방음벽 설치를 완료해 왔는데 바로 앞 도로변 B아파트는 방음벽 설치가 안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건설도시국장은 "교통신용조사를 통해 기준치가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과와 협의해 방음벽 추가공사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2015년에서 2016년도 사업계획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복지재단의 전문성이 결여됐다. 이제부터라도 전문성 있는 직제를 개편해 형식적인 배분 사업을 지양하고 통합 시민사회복지유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족한 복지 안전망을 개편해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도시국 업무계획보고에서 이연희 의원(무소속·인지면, 부춘동, 석남동)은 "도로변 아파트 방음벽설치 공사에 대해 A아파트 앞에는 지난해 방음벽 설치를 완료해 왔는데 바로 앞 도로변 B아파트는 방음벽 설치가 안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건설도시국장은 "교통신용조사를 통해 기준치가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과와 협의해 방음벽 추가공사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설 선물, 만세보령 농·특산품으로 마음 전하세요"

삼광미 골드·오션테라피 등 최대 33% 할인... 품질 우수·가격 저렴한 선물 제력

충남 보령시가 민중 교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가족과 친구, 고마운 사람들에게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만세보령 농·특산품으로 마음을 전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만세보령 농·특산품' 중 삼광미 골드는 2015년과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명품 쌀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와 우수로 선정됐고 2020년과 지난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맛과 향, 외관, 품질을 자랑한다. 삼광미 골드는 택배비 포함 10kg 기준 3만5000원에 출고되고 있으며 만세보령농협쌀조합 공동법인 또는 시중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보령머드화장품도 설 선물로 안성맞춤이다. 오션테라피 브랜드 보령머드화장품은 미네랄성분이 풍부하고 케라틴, 멘토나이트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돼 피부수축과 피부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인기가 높다. 구매는 직영점인 보령축제관광재단 머드박물관에서 할 수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재단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설 특별할인 기간인 오는 28일까지는 품목에 따라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차례상 전품으로는 만세보령주가 제격이다. 만세보령주는 산 좋고 물 맑이 좋은 성주산악령 삼 안골의 맑은 물과 보령지역 고품질 쌀로 세 번 빻아 120여 일간의 저온 발효 과정을 거쳐 빚어진 보령 전품주 500ml 세트 3만1000원,



사진 왼쪽 시계방향으로 삼광미 골드, 보령머드화장품, 만세보령주.

750ml 세트 4만44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은 영농조합법인 보령전품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9일과 30일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설맞이 보령 우수 농 특산품 홍보관'을 열어 머드화장품, 조미김, 누룽지 과자 등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우체국쇼핑몰 보령명품터를 통해 최대 33% 할인인 금액으로 농특산품을 판매한다.

보령/ 이연경기자 leegy@jeonmae.co.kr

이은상 천안시의원, 충남도 매칭사업 분담 비율 개선 촉구

이은상 충남 천안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매칭사업 분담 비율 개선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비율은 사무 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법령을 적용받아 정해지고 있다"며 "최근 충남도가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중된 기준 없이 일방적

으로 재정 분담 결정을 통보해 지방자치체도의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코로-119 관련 충청형 상생지원금, 충청형 보육 정책 확대, 충청형 농민시장 확대 등에 있어 시군이 요청한 재정 분담 비율을 무해 시군이 자율적 정책수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급여 사업 등 도의 분담

비율이 70%로 규정됐으나 50%로 교부되고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비율로 즉시 반영할 것, 신규사업 제원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의 보조비율을 축소할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충남청년센터 육성지원 사업 등은 그 보조 비율을 원래의 비율로 회복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청년희망카드 등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충남도가 70%이상의 재정 부담할 것"을 제시했다.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최대호 안양시장 "남북관계 개선노력 연속성 있게 펼쳐야"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만남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최근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남북관계가 지속성 있게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구상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현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지방과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에 동참이 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회장인 최 시장을 비롯해 부회장이 박승원 광명시장, 김중현 과천시시장, 정동훈 양평군수,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재준 고양시장을 대신한 박원석 고양시 제1부시장 등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이 함께했다.

최 시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또 남북교류가

정치적 변동에 따라 단절되거나 리셋 될 것이 연속성 있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통일부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교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생각하며 지방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통일부의 남북교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야할 것을 당부했다.

또 통일부 입장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은 평화 주도의 성장이어야 한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5일 최대호 시장이 초대 회장에 추대된 가운데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 회장이 지지체장으로 있는 안양시를 중심으로 사무국 운영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정선군,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

보편적 교통복지 우수성 인정

강원 정선군이 '2021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수상단체로 선정돼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5월~11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자체의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 하는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를 개최했다.

이전 정책대회에서 군은 버스공영제와 외곽버스 주제를 버스 안전공영제 추진 배경 및 과정, 그동안 추진성과 문화와 관광, 경제, 복지를 접목한 보편적 교통복지 수

단적으로 선정했다. 최순준 군수는 "문화와 관광, 경제, 복지를 접목한 보편적 교통복지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군 공영버스의 외곽버스는 65세이상



강원 정선군이 '2021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수상단체로 선정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어르신과 초·중·고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주민과 관광객도 1000원만 내면 군 관내를 어디든 외곽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양구군, 해안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탄력'

총 200억 투입 내년 준공 예정

강원 양구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단위로 공모한 2022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인 해안면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비 140억 원과 도·군비 60억 원 등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군이 조성한 스마트팜 시설을 적정 임대료로 기본 3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창업 초기 높은 투자비용으로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농에게 초기 자본 축적과 재배역량 향상 및 농민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일원 6.5ha 규모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시설을 기반으로 한 첨단온실 및 스마트팜 장비 설치에 165억 원, 팜을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 농 배수로 등 기반 토성에 35억 원을 투자해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북부지역의 여름철 서늘한 기후와 큰 일조량을 이용한 차별화된 여름작기 재배를 통해 부합형 스마트팜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산림바이오매스(미 이용 산림자원)를 이용해 탄소중립 스마트팜을 구현함으로써 친환경 및 저탄소 자원 순환형 농업 실현을 추구할 방침이다.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강원도 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 최종 8개 선정

포상금 500만원 홍보·마케팅 지원

강원도와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은 지난 13일까지 '강원도 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 공모전' 신청서류를 접수 받고 20일 PT심사를 통해 최종 8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강원도만의 특색을 살린 인센티브 관광 콘텐츠 확보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인바운드 여행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공모전은 우수부문 2개, 육성부문 3개, 인큐베이팅부문 3개, 총 8개의 프로그램을 선정,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해 향후 국제관광 시장 재개를 대비해 선제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프로그램은 우수 2개 '가자 한국! 가자 강원!', '해와눈뜨 관계자를 위한 한국의 선진 농업 견학 상품', 육성 3개 '평창으로 리워드여행!', '강원도에서 먹고 명상하고 치유하라', '한국체험이 시작되는 강·강원', 인큐베이팅 3개 '한국의 겨울을 즐기는 겨울!', '아메이징 강원도 게임', '강원도 웰니스 힐링' 등 총 8개이다.

도 내 특화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강원도만의 팀빌딩 프로그램들을 통해 기업체 인센티브 관광단체들의 단합을 위한 콘텐츠들이 포함돼 있다.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금지지원서비스 등록하세요”

전남 구례군은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군민을 대상으로 금연등록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가지에 ‘2022년에는 기필코! 금연지원서비스와 함께라면 금연성공률 8배’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금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 금연상담실에서는 관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금연 등록을 홍보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금연보조제 및 행동 강화물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6개월 금연 성공 시 성공물품도 지급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는 흡연자에게는 전화상담으로 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규례/ 양광식기자 yang-ka@jeonmae.co.kr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금 확대 지원

전남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군비 4억 원을 투입, 수산 분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금을 확대 지원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 어선원·어선 재해보험보험의 보험료를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험보험은 10톤 미만 어선 소유자 등 연 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인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이나 사망 등 재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또 전복, 김, 굴 등 7개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가 보호를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도 5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되며 어업인 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받는다.

진도/ 김연일기자 kyj@jeonmae.co.kr

틀니·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접수

경남 의령군은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틀니 및 치과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 50% (올해 1월 기준 직장가입자 11만100원, 지역가입자 10만4500원) 이하인 자이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틀니(전부·부분), 지대치,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레진과 보철도 지원된다. 다만 틀니는 기 수혜자의 경우 7인이 경과해야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 방법은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군 보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의령/ 최판규기자 chpaj@jeonmae.co.kr

도시농업 공영농장 분양

경북 경산시는 관내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산적인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7일부터 28일까지 도시농업 공영농장을 분양한다.

시가 운영하는 공영농장은 신천동 241-1(13곳 중설지)에 위치하며 운영 규모는 채광형 텃밭 5600㎡로 주차장, 쉼터, 화장실, 농자재창고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분양 구역 수는 12㎡가 224구좌, 21㎡는 70구좌로 총 294구좌이며 분양대금은 12㎡ 5만 원, 21㎡ 9만 원이다.

경산/ 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지역축량 우수로 감면제도 운영

경북 영양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축량 우수로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청송영양지사는 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역축량(경제복원, 지역현황, 분할 등)에 대해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역축량우수로 감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김장냉동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축주책기량 사업이며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장애인(1~3급)도 지역축량우수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제축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제점표지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할인해 적용한다.

영양/ 김광원기자 kw-kim@jeonmae.co.kr

아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시동

경남 하동군은 아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기로 하고 내달 18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아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한 현선울타리 등 200개소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설치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내달부터 오는 3월 중에 설치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설치를 시작해 5월 수확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동/ 임홍식기자 mhsh@jeonmae.co.kr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위원회 ‘첫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제1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첫 회의 개최 여순사건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심사·결정·명예회복 등 심의·의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1일 시행령에 따라 위원의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께 출범했다.

여순사건법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 화합의 길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에 제정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부

위원장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6명의 정부위원과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촉된 총 9명의 제1기 민간위원은 오는 2024년 1월 20일까지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유족대표, 법조계, 학계, 지역·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위원회와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부겸 위원장은 “해방공간에서의 참예한 죄우대립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에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로 남았다”며 “역사의 소용돌이에



전해철(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김영록(왼쪽 두번째) 전남지사 등 위원들이 위원회 사무실에서 헌편식을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휘둘러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시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은 진상규명과 이에 비례한 상응이해 속에서만 가능하다”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통해 희생

자와 유가족에게는 위로로, 후대에는 역사이해 속에서만 가능하다”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통해 희생자

홍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경북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경북도는 내달 2일까지 설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전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기를 악용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한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및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전인 1단계인 오는 2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단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설날 연휴 대비 내달 2일까지 홍보 계도단속·순찰상황실 운영

업소 2804개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해당업소에 협조문을 보내고 중점감시 대상시설 484개소에 대해 비대면 순찰을 실시해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전 심리를 차단한다.

다음 연휴기간인 2단계는 내달 2일까지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장구를 운영해 환경오염사

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낙동강 중상류지역 주요 하천과 지천 및 공간 배수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오염행위 감시 순찰에 총 8개조 120명을 투입해 환경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최영숙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설날 전후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완벽한 오염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의령군, 설맞이 전통시장 페이백 이벤트 ‘눈길’

경남 의령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을 앞둔 오는 30일까지 의령전통시장과 신반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상품 구입액 5만 원 당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하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상인의 사무실을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 받게 된다.

자녀에 이어 추진하는 페이백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전통시장 제고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상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명절마다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지역 상권이 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고객들에게는 명절 세수비용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설 대목시장에 많은 군민이 모일 것으로 보고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이벤트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리라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이벤트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의령/ 최판규기자 chpaj@jeonmae.co.kr

‘순천형 광장토론’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 최우수 선정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회장상 수상 민선 7기 직접민주주의 운영 성과 호평

전남 순천시는 최근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순천형 광장토론’이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지난해 ‘권분운동’에 이어 올해 ‘순천형 광장토론’까지 우수정책으로 선정돼 전남 지자체 유일 2년 연속 수상했다.

순천형 광장토론은 민선 7기 시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지향,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의 현안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핵심적 시장 운영방식이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오랫동안 시정 현안인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가동중단 위기, 스카이뷰 운영 중단과 1367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문제, 지난 24년간 매달거지 못한 채 논란이 된 신성사 건립부지 확정 문제 등 해결 실패를 광장토론에서 찾았다.

또 크고 작은 현안이 있는 곳이라면 마을, 골목, 시장, 전막 등 어디든지 찾아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점, 별과도, 현안토론 등 119회를 실시했다.

이외 코로나19 상황 속에 비대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

소통 창구로 ‘함흥’을 설치해 215건의 건의, 고충민원 등을 청취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자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인 ‘순천e민주정원’ 구축·운영 등 새로운 소통방식을 정착하고 있다.

허서 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광장토론을 자주 열어 생활 속 작은 문제부터 도시가 직면한 문제와 미래전까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정에 변화와 혁신의 바탕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순천이 직접민주주의의 메카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설 대목시장에 많은 군민이 모일 것으로 보고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이벤트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리라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이벤트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의령/ 최판규기자 chpaj@jeonmae.co.kr

목포시, 안정적 조직 운영 중점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총 333명 규모

전남 목포시는 23일 상반기 정기인사를 2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과 명예퇴직,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신규임용 등에 따른 승진 및 전보인사로 승진 68명, 승진의결 1명, 전보 221명, 신규임용 35명 등 총 333명 규모다.

승진인사는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기본으로 소수지명 안배, 경력과 업무 성과, 시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전보인사는 업무역량, 개인고충 및 희망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간부급은 민선7기

핵심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전보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중점을 뒀다.

또한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방역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방역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시장 등은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파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보건, 간호 직렬은 고충 및 업무피로감 해소 차원에서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순환 전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인구정책팀, 스마트빅데이터팀, 공동주택지도팀을 신설해 조직 발전 및 다양한 신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했다.

목포/ 권성용기자 ksy@jeonmae.co.kr

영천시, 반부패 청렴 서약식 개최

경북 영천시는 지난 22일 시청에서 최기문 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간부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랑스런 시의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해 깨끗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선서하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청렴서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했다.

이번 서약식은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실천의지를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표명하고 실천의지는 취지에서 개회했으며 시는 올해 ‘호시마주(虎視馬走)’의 결의로 강도 높은 반부패 시책을 펼쳐 청렴도 향상에 행정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집결할 계획이다.

영천/ 윤성중기자 yun-sj22@jeonmae.co.kr

조근제 함안군수, 산불대응센터 방문 점검

산불진화대 격려

경남 함안군은 23일 조근제 군수가 지난 20일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동절기 건조특보 발효에 따른 산불방지 대응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산불대응센터에 근무하는 산불진화대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군은 동절기 가뭄에 의한 건조주의보 발효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에 따라 산체적 산불 예방활동과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들 산불 조기발견을 위한 인력 확충

및 시설 기반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3명, 지역감시원 88명을 현장에 투입해 철저한 산불감시와 비상시 출동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CCTV 5대를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했으며 임차점포 1대, 산불진화차량 5대를 확보해 비상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현장 방문한 조 군수는 “산불은 산업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재난”이라며 “군민 모두가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안/ 김경도기자 jd2009@jeonmae.co.kr



조규일 전주시장이 최근 진양호 독서카페와 소규모 카페갤러리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를 격려했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전주시 제공>

전주시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문화공간 조성 ‘착착’

조규일 시장, 현장 점검

경남 전주시는 23일 조규일 시장이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진양호 독서카페와 소규모 카페갤러리 조성공사 현장을 지난 20일 방문해 공사 관계자를 격려했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7기 조규일 시장 공약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이었던 진양호 근린공원을 친환경 레저 힐링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기로 하고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보성과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공원 내 보상 완료된 노후 주택, 카페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고 있다.

특히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진양호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는 진양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전시·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문화활동 공간조성을 위해 사업 전 노후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지난해 11월에 착공해 오는 3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조 시장은 “공사 기간 중 진양호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겨울철 현장 작업자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전주/ 박종복기자 bjb@jeonmae.co.kr

문경시 정보화마을, 우수 농·특산물 특판행사 ‘이목’

내일 시청 중앙편견서 실시

경북 문경시 정보화마을(문경새재발전사)과 마을·오미자마을·우로살마을)은 2022년 입인년 설날을 맞아 오는 25일 시청 중앙편견관에서 우수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매년 설·추석연휴에 시청에서 열리는 특판 행사는 청정문경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문경음료 딸림마을의 새콤달콤한 사과, 꿀 깊은 동로면의 선홍색이

좋은 오미자장과 호계면 우로살마을의 깨끗한 자연이 결실을 맺은 건강한 잡곡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화재인 문경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특판 행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경/ 안병관기자 ahn-bk@jeonmae.co.kr

남원시 “올해도 책값 돌려드려요”...월 2권 최대 4만원

전북 남원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보다 양껏 탐독할 수 있도록 지난해 이어 올 해도 지속적으로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들의 독서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온라인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긍정적 사업 효과를 내고 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들이 남원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고 한 달 이내

에 공공도서관으로 구입한 책과 도서 구입을 증원할 수 있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월 2권 최대 4만 원까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원한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작년에는 남원시민 1324명이 참여, 2406권의 책을 구입해 위음으로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소진했다. 또한 지난해 시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으로 전북도 작곡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원/ 오광식기자 oks@jeonmae.co.kr



오늘의 날씨 전국 구름 많고 포근...미세먼지 '나쁨'

2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빗방울 또는 눈 날림이 있겠다. 제주도는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10mm, 경북 북동 산지·경북 동해안·제주도 5mm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도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충남·전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사투리뉴스]

안동시 "시설하우스 겨울철 단디하세요"

경북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겨울에 하우스를 잘 관리하면 겨울철 하우스 생산량이 늘고 비닐도 덜 교체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시설하우스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하우스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하우스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시 "시설하우스 겨울철 대비하세요"

경북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겨울철 하우스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하우스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하우스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사투리 기사와 관련 독자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jm600@naver.com)

삼척시, 지적재조사 용연1지구 164필지 경계 결정

강원 삼척시는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용연1지구 164필지에 대해 최근 지적부담지구 내 경계를 산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결과는 6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3월말 사업 완료공고 및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삼척/ 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인천 연안동성당 사제관 건물열 오피스텔 공사장

지반교란 균열·붕괴위험 가중

주인들 "타파기 공사가 원인인듯" 상당축 대책마련 요청 일단 중단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소재 연안동성당 사제관 건물 열 오피스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교란 영향으로 사제관 등 건물 곳곳에 거대한 균열과 벽체가 밀려나고 누수현상까지 생겨 붕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30층짜리 건물 28~38층 일부가 붕괴하면서 1명이 다치고 고창호·미장·소방살비 작업자 6명이 실종돼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안동 주민들은 "연안성당 바로 옆에 17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타파기 공사가 원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자 김 모씨(66·연안동)는 "내부에 들어가 보니 8개의 기둥보가 임의로 설치돼 있고 바닥 크랙이 가 있다"며 "문들은 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배관도 터져 누수도 발생하고 있었다"며 붕괴 위험을 우려했다.

이에 상당 측은 최근 구와 구·시의회 등에 대책 마련을 요청, 일단은 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에는 구 및 구의회·관련 전문가 등과 회의석상에서 안전진단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사 재개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제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거나 영구적인 보강 조치를 한다는 것이 양자의 합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호 중구의회 도시정책위원장은 "연안성당 사제관 건물을 거대한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이 있다는 민원접수를 받고 공사현장에 즉시 달려갔다"며 "공사 현장소장, 상당 관계자, 구 관계부서에 공사 중단과 거주자 이주, 즉각적인 안전진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소재 연안동성당 사제관 건물 열 오피스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교란 영향으로 사제관 등 건물 곳곳에 거대한 균열과 벽체가 밀려나고 누수현상까지 생겨 붕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인원/정원기자 wk-ok@jeonmae.co.kr

경기도내 신축공시장 4곳중 1곳 '안전불감증'

도 소방재난본부, 신축공시장 193곳 단속 45곳 적발 법령 위반대상 강력 행정처분... 256곳 추가 상시단속

경기도내 신축공시장 4곳 중 1곳 꼴로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경기도내 신축공시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45곳(23%)을 적발하고 일전 2건, 과태료 처분 20건, 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도내 A신축공시장은 바닥방수층 예폭시 시너(제4류 1석 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또 B공시장은 용접 작업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공시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193개소 506명을 동원해 간이소화장치·패난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패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라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장 256곳에 상시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 처벌할 방침으로 공사책임자 등은 화재예방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여주축협 하나로마트, 적극적 사회공헌 활동 '귀감'

지리점 점장 "지역사회와 소통·사회공헌 마트 운영의 일부분"

경기 여주축협이 직영하는 하나로마트가 마트 운영의 비전 외에서도 '같이 가치실현'과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헌혈 운동 참여자가 급감하면서 혈액 부족과 확보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주축협 하나로마트는 지난 21일 마트 주차장에 이동 헌혈차를 이용한 헌혈에 동참했다.

최근 실시한 헌혈 동참은 사전에 SNS를 통해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지정장과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많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헌혈에 동참한 분들에게는 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푸라미 세트를 증정해 '나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축협 하나로마트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난해 코로나19 대 확산시 마트 입구에 신속PCR 이동 검사소를 시와 협업으로 설치하고 마트 고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오화동 및 강전면과 협약을 통해 일정 상량의 물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꾸준히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지리점 점장은 오화동과 사회단체에 개인적인 나눔과 기부를 이어오고 나눔축산운동본부에도 누적 기부금이 500만 원 이상 적립하면서 작년 5월 이달의 나눔축산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리점장은 "축협 하나로마트가 코로나19의 악조건 속



경기 여주축협이 직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지난 21일 마트 주차장에 이동 헌혈차를 이용한 헌혈에 동참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에서도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덕분에 최근 2년 연속 3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며 "기업의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소통하는 것은 마트 운영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군포시, 역세권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

참여 공동체 최대 800만원 지원

경기 군포시가 군포역세권의 도시재생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포역세권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진단, 해결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기반의 도시재생사업이다.

대상지역은 12만9000여㎡에 이르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이다. 전체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단체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마을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주민참여 기반의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시에 소재하면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이며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조해 내달 4일까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군포시 군포로 548 3층, 031-390-3290)를 방문해서 하면 접수된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안양시, 하수처리장 폐열 지역난방에 재활용

GS퍼워와 협약...예산 10억 절감

경기 안양시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에 재활용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최대호 시장과 조계제 GS퍼워(주) 대표이사 최근 시 상황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 미활용 에너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하수 및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발전기가 가동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된 열은 하수처리기 건조에 사용한다. 그럼에도 부족한 열은 보일러 가동으로 건조기에 추가로 공급하고 하수처리기를 고온(165℃)으로 가열해 찌꺼기 양을 줄이는 강광화 시설(THP)에 공급하고 있다.

강광화 시설을 거친 고온의 찌꺼기를 다음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40℃ 정도로 낮춰야하는데 시는 이를 위해 약 10억 원을 들여 냉각설비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발전기와 건조기의 열 교환을 위해 냉각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돼 10억 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잉여 바이오가스를 양어면서 약취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최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외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 온실가스 저감까지 일석삼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충남 보령시 대천2동 제8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출범을 일컫는다. <보령시 제공>

보령시 대천2동 제8기 주민자치회 출범

충남 보령시 대천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자치위원회를 이끌며 임원진을 구성하며 제8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이날 위원 26명이 참석해 가운데 진행된 출범식에는 임원선출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 위원들이 함께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영상은 대천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고문 모두가 참여한 영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원들 각자의 희망 메시지가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고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고자 하는 결의를 다졌다.

유병하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이 허우적거리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의료진과 방역 당국 그리고 시민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한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영상은 동사무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앞으로 시민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보령/ 이연영기자 leegy@jeonmae.co.kr

세종교육청,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실태 점검

세종교육청은 설을 앞두고 최근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세종교육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설을 임금체불에 대한 근심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현재 시교육청이 발주해 관리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은 집현유·초동 학교, 집현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등 8개소이다.

이들 공사현장의 공사업체에 기성금과 노무비 청구를 적극 안내해 조기

대금 청구를 유도하고 공사대금 신청 시 신속한 처리와 지급기간 단축 지급 등 설 전 사업비가 조기 집행되도록 안내했다.

특히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체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희 행정지원과장은 "설 전 공사대금을 조속히 지급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 도박하다 흥기로 찢려 의식불명...2심서 징역 12년



화제의 판결

도박을 하다가 사비가 벌어져 40대 남성성을 흥기로 찢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50대 남성이 형소상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환)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과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 1심 징역 7년 6개월 파기  
“피해자 가족들 엄벌 탄원 등 고려”**

형소심 재판부는 또 A씨의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9일 오전 0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며 카드 도박을 하다가 B씨(42)의 복부를 흥기로 찢려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앞으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15차례 남게 수술을 받았고 1년 이 넘는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라며 “피해자는 이상태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의식을 찾는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 해도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대신 냈으나 진지하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손현규기자

## 포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감속기 고장 가능성에 무게

**61명 구조·39명 자력으로 탈출  
사고원인 규명 시간 걸릴수도  
2006년에도 유사사고 7명 부상**

지난 22일 발생한 경기 포천시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3일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현재 피해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사고 당일인 22일에도 현장에서 베어스타운 관계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기초 조사 결과가 취합되면 베어스타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기계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과수와 리프트 전문가 등과 감식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리프트 기계가 가해진다고 감식을 위해 외부 구조물 일부를 해체해야 할 수도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는 감속기 고장으로 리프트가 멈추자 비상 엔진이 가동된 뒤 역주행하면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사고 당일 리프트에 대한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안전검사 등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는 전날 오후 3시에 상급자 코스 슬로프 정상을 향해 올라가던 리프트가 갑자기 역주행하는 사

고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5시14분쯤 이용객 구조를 완료했다. 이용객 100명 중 61명을 소방에서 구조했고 39명은 리프트가 지상에 가까워졌을 때 뛰어내리는 등 자력으로 탈출했다.

베어스타운 측은 22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사고 발생 리프트 외에도 스키장 내 모든 리프트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즉시 안전점검에 돌입하겠다”며 “소방당국 및 관련 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마리를 숙였다. 베어스타운에서는 2006년에도 유사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부상 당한 바 있다.

포천/ 신원기기자 shin1g@jeonmae.co.kr



성묘객 '부끄러운 흔적' 실 연휴를 일주일 기량 앞둔 23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에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있다.

연합뉴스/ 안종영기자

### 이천시,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자진신고 운영

단독 자진신고 최초자 과태료 면제

경기 이천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자진신고한 자는 과태료 전부를 면제 받거나 절반을 감경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허위사실을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자만이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진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된 후 최초로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증거자료의 제출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서 및 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거래신고할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담합을 방지하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확인이 용이해지는 등 허위계약시도를 억제해 성실신고를 유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 지원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 경기도 특사경, 리얼돌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확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며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

먼저 ‘대리구매’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숙박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한다. 또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 밀집 지역, 학원가 등 주거지역까지 들어서 홍보용 입간판, 풍선형 옥외광고물들을 설치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를 수사한다.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으로 청소년 혼숙의 유형 및 발생지역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수사기법을 발굴할 방침이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 인천 특성화고서 일반고 중도 전학 증가세

**3년간 729명 진로변경 전입학으로  
“대학 진학·특성화고 인식부족 원인”**

인천지역 최근 3년 동안 특성화고교에서 일반고교로 중도에 전학하는 학생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2020학년도까지 특성화고 학생 729명이 진로변경 전입학 제도를 통해 일반고교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학생은 연도별로 2018학년도 217명, 2019학년도 243명, 2020학년도 269명으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 기준 인천 내 특성화고 27곳 재학생은 1만3407명이다. 학교당 평균 학생 수(496명)를 따지면 매년 전교생의 절반가량이 일반고로 옮겨간 것이다.

이외반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옮겨간 학생은 같은 기간 198명이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하는 사례와 비교해보면 27%가량이 일반고로 옮겨간 것이다.

최근 진로변경 전입학이 마무러된 2021학년도 2018학년도 217명, 2019학년도 243명, 2020학년도 269명으로 매년 100명을 넘기지 않았다.

주요 대입을 위해 일반고에 진학하는 추세와 특성화고에 대한 사전 인식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옮겨가는 학생들의 지원 동기를 보면 대학 진학이 주된 이유고 특성화고의 실습교육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다”며 “반대의 경우 뒤늦게 적성을 찾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작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직업계고 9곳의 학과를 개편하는 등 교육 과정 특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낸다는 취지다.

인천/ 정영민기자 wk-ok@jeonmae.co.kr

### 사건·사고

전자발찌 훼손하고 술 마시다 ‘달미’

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가 배회중에 만난 택시 기사와 함께 술을 마시다 붙잡혔다.

23일 경남 미산중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사는 A씨는 전날 오후 2시에 장원 마산합포구 천누나 집을 방문해 잠시 외출했다가 인근 절물집에서 산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사라졌다.

이를 확인한 의정부 보호관찰소가 신고, 경찰은 A씨 동선을 추적해 약 6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20분경 장원 의정부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술 마실 곳을 찾기 위해 택시를 3번이나 갈아타며 장원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3번째 택시 기사에게 “술 한잔 같이하자”고 권유해 이에 호응한 택시 기사와 동서간 잔을 기울이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술이 마시고 싶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6년 2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A씨 신병을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로 인계했다.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2년째 DMZ서 포착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의 사식이 2년 연속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비무장지대 군부대에서 보안검토 등을 거쳐 보내온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무인센서카메라 자료를 분석해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지난 2020년 4월 16일에 반달가슴곰 성체 1마리가 처음으로 포착됐고 그해 5월 29일에는 다른 지역에서 성체 1마리가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혔다.

지난해 4월 21일과 8월 21일에는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개체로 추정되는 성체 1마리가 포착됐다. 이 개체는 지난해 6월 1일 다른 위치에서도 카메라에 잡혔다. 2018년 10월 12일에는 어린 새끼(8~9개월)로 추정되는 반달가슴곰이 무인센서카메라에 처음으로 포착된 바 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2018년도의 어린 개체와 2021년도의 성체가 동일한 반달가슴곰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반달가슴곰이 비무장지대 내부에서 행장구역을 넘나들며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홍성수기자 hongss@jeonmae.co.kr

청소년 100여명 이교교생 1명 집단폭행

10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1명을 무차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원주경찰서는 15~18세 청소년 5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강원 원주시 단계동 상가건물 계단에서 고교생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얼굴 뼈가 내러앉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같은 집단폭행은 PC방에서 A군과 가해 청소년 중 한 명이 어깨를 부딪치면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된 5명을 포함해 일행 10여명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달아난 청소년들의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다. **원주/ 안종영기자 yahn@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질병관리청

#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안내”

• 2022.1.3.부터 •

###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은?

-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 인정
- 3차접종을 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 인정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12~17세 청소년에게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2021년 7월 7일에 2차접종했다면, 2022년 1월 3일 24시까지 효력이 인정됨

(예시) 10월 1일에 3차접종했다면,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됨

###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 확인은?

2차접종 후 경과날짜 확인이 쉬운 COOV앱 사용을 권장합니다.

<p>COOV앱(전자증명서)</p>	<p>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p>
<p>유효기간 만료 시, COOV앱에서 유효기간 만료된 증명서로 조회</p>	<p>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 경과여부, 3차접종 여부 확인 (별도 유효기간 표시 없음)</p>

2차 접종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국민비서 알림 안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링크)에서도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매일 확인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전, 3차접종을 받아 ”

예방접종 증명 효력을 유지하세요!

동정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24일 오후 2시 주관인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전통시장 정보기 행사 최영조 경북 경산시장은 24일 오전 11시 설을 맞아 하양공설시장에서 전통시장 정보기 행사에 참석.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장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 안효인 산화회장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받는다.



사회복지시설 현상행정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는 24일 오후 2시 군 일원의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현상행정에 나선다.



간부회의 김석환 충남 홍성군수는 24일 오전 8시 40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지후부 간담회 주제 이현중 강원 철원군수는 24일 오전 8시30분 집무실에서 지후부 간담회를 주제한다.



해상케이블카 유치 회의 주관 함영준 강원 고성군수는 24일 오전 9시 집무실에서 해상케이블카 유치 관계간 회의를 주관.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조현화 강원 정선군의회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78회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 참석.

전국농학계대학교장협의회장에 선출



목포대학교는 박흥서(사진) 자연과학대학장이 최근 열린 전국농학계대학교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인 회장에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박 회장은 "농촌 소득증진을 위한 실용화연구기술개발 및 농과대 우수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설다"고 말했다. 지난 1980년에 구성된 (사)전국농학계대학교장협의회는 2008년 9월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인기관으로 전국 4년제 농학계 대학의 회장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 43개 대학이 회원대학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국 국·공립 및 사립 농학계 대학 회장들을 대표해 농림축산식품, 생명산업 분야의 교육·산업·R·D 및 전방향 수립에 참여한다. 목포/ 권성용기자 ksy@jeonmae.co.kr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수상



박봉순(사진) 대전폴리텍대학 권역대학장이 제9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대상 상패를 수여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박 회장은 35년간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몰입해 인력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지식경영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평생교육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전폴리텍대학은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3D 프린팅 등 신기술 분야에 체계, 전문, 산업설비 등 꾸준한 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전자·기계·IT 분야까지 다양한 계열의 예비 기술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내달 14일까지 2년제취약과정 녹색산업설비과, 스마트자동차과, AI융합과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선혜이습 선점자 원장, 장흥군 장평면 5년째 이·미용 재능기부

“어르신 웃는 모습에 행복감 느껴”

올해 매월 1회씩 서비스 제공 맞춤형복지 특화사업 추진 예정

전남 장흥군은 장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5년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에쁘얼글·에쁘얼미, 찾아가는 이·미용봉사’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매월 외출이 힘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머리를 다듬어 드리는 맞춤형복지 특화사업이다. 매달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주는 인기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혜이습 선점자 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기분전환도 하시고 예뻐져야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작은 시간이지만 행복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안병진 군 장평면장은 “웃기 싫어 헌신하는 마음으로 꾸준한 봉사를 해주는 선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맞춤형복지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흥/ 이명호기자 LMH@jeonmae.co.kr



장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5년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장흥군 제공>

김동수씨 여주신협 제16대 이사장 연임

“조합원 이익·편익 최대한 보장할 것”

경기 여주신협 제16대 이사장에 현 김동수(사진) 이사장이 선출돼 연임에 성공했다. 전남 여주살기체육과에서 진행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실시된 결과는 총 조합원 7738중 196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267표를 득표해 당선됐고 이일선 부이사장도 선출됐다. 이사 및 감사 선출에 있어서도 이사에 강인하, 조성준, 송계숙, 문상선, 이재관, 송동원씨로, 감사에는 성창훈, 김남규, 박수형씨 등이 정원 정족수에 맞는 출마로 경선 없이 전원 무투표 당선으로 김 이사장과 함께 올해부터 4년간 여주신협 임원으로 활동한다. 여주신협은 2021년 종합감사 외부기관(도원회계법인) 독립된 감사보고에서 여주신협의 재무제표는 작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재무성과 현금 흐름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과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



요성의 관점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임에 성공한 김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지난 4년간 전 임직원은 신협이 추구하는 복지사회 건설에 앞장서고자 조합원 및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자조, 자립, 협동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들의 열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많은 조합원들이 자신을 믿고 제16대 이사장에 재선출해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과 보답하는 것은 조합원의 이익과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작년 말 기준 약 1230억원의 자산을 올해 1400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고 최대한 이익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조합원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최덕제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장 ‘아름다운 퇴장’

33년간 공직생활 명예롭게 마무리

경기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최덕제 소장은 33년간의 공직생활을 최근 명예롭게 마감했다. 최 소장은 1989년 8월 21일자로 평택군 공채로 임용기원보로 공직에 입문해 공직생활을 시작해 현재까지 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지방기술서기관 4급) 소장으로 평택시 도시숲 조성사업에 열의를 다해 풍백전과 국도1호선변 등에 각종 나무들을 식재해 시가 추진하는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에 많은 공헌을 했다. 이에 최 소장은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1991년 평택군수 모범공무원 표창을 시작으로 1994년도 산림청장 임용발령유공자 표창, 1999년 경기도 자체제삼수공 표창, 2009년 정부모범공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최근 당진시 송악문화스포츠센터 강당에서 북콘서트 형식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살맛나는 도시, 당진을 꿈꾼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당진의 꿈, 나의 꿈’ 출판기념회

충남 당진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더민주·당진2)은 최근 당진시 송악문화스포츠센터 강당에서 북콘서트 형식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김 의장의 ‘당진의 꿈, 나의 꿈’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양승조 충남지사와 어기구 의원 등 주요 내빈들은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7년의 불배신화 감명산에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필승을 기원하는 목소리를 냈다. 양 지사는 “김 의장은 한 마디로 대단한 사람이다. 정당을 불문하고 7년이나 선출된 동지다. 당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군대 생활을 제외하면 지역을 떠나지 않은 토박이로서 당진을 잘 아는 사람이 김 의장”이라며 “김명선의 꿈, 당진의 꿈이 17만 시민의 꿈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김 의장을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어기구 의원(당진)은 “기네스 북에 오른만한 7년의 불배신화를 가진 사람이 김명선이다. 당진에서 도의회 의장을 배출한 역사도 처음이다.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지났는데 김명선은 그 역사와 함께 했다”며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진시장에 도전한다고 하니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김 의장이 꿈꾸는 당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당진의 꿈, 나의 꿈’ 책 본문에서 살맛 나는 도시 당진을 꿈꾼다. 잘살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 풍요로운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꿈꾼다. 참된 산업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도시를 꿈꾼다. 미래는 꿈꾸는 자들의 것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정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고등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청사 이전 후 지역발전 등 상생 방안 모색할 것”

정현국 경기도의회(더민주·수원7)이 “의회가 고등에서 만든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청사 이전 이후의 지역발전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청사 이전에 따른 소회를 전했다. 정 의장은 청사 이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1일 수원시 고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현돈 동장을 만나 청사 이전 이후의 구상사 활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일환으로 추진된 이날 방문에는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조인원 경기도 자선보림장, 김형진 고등동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팀장이 함께 했다. 정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세울 셋방 살림을 정리하고 수원시 고등동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30년이 됐다”라며 “긴 세월 주민과 함께 이룩한 많은 일을 뒤로 하고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현명기자 han-ym@jeonmae.co.kr



정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사 이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1일 수원시 고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사 이전 이후의 구상사 활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

회정1동 주민자치위원회서 감사패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김수영 의원(사회도시위원장·사진)이 주민을 위한 의원으로 거듭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최근 회정1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로 뛰고 공부하는 자세로 서구 주민들의 민생에 역할을 두고 소통하며 감사하는 의원으로 거듭나 회정1동 새마을 3개 단체인 협의회, 부녀회, 문교 등 회장으로부터 일 잘하는 의원으로 밝혀 감사패를 받았다. 호남취재본부/ 범대중기자



김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소 풀뿌리 의정대상, 지방의정 봉사상, 무등의정 대상, 거버넌스 정치대상, 광주지방자치 정책연구원 지방자치대 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려는 뜻으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범대중기자

포토뉴스



권정선 경·도의원, 부천 소명여중 운영위원장 애로사항 청취 권정선 경기도의원(더민주·부천5)은 최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소명여중학교 운영위원장 ‘운동장 없는 학교 지장’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명기자 han-ym@jeonmae.co.kr



인천 중구, 국제인전도시 공인취득 기본조사용역 최종보고회 인천 중구는 최근 국제인전도시 공인취득 기본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인천/ 정원일기자 wk-ok@jeonmae.co.kr



철원군, 착한기게 223호점 ‘맛나팜’ 현판식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소재 ‘맛나팜’이 최근 착한기게 223호점, 착한기게 10호점으로 등록돼 현판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농협 의령군지부, 설맞이 사랑의 쌀 70도 기탁 경남 의령군은 최근 N농협 의령군지부에서 군정을 방문해 설맞이 사랑의 쌀 70도(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령/ 최관규기자 chpag@jeonmae.co.kr



차 문화연구소, 보령시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충남 보령시는 최근 시장실에서 김현욱 차 문화연구소 대표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농협 금산군지부, 설맞이 떡국떡 100박스 기탁 N농협금산군지부는 최근 군정을 방문해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새달라떡 떡국떡 100박스를 기탁했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서천축협, 사랑나눔리 물품 정육세트 기탁 충남 서천축협은 최근 설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800만원 상당의 한우, 돈육 세트를 군에 기탁했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제일축협인제나리팀, 정선정학회에 500만원 기탁 권오명 제일축협인제나리팀 대표는 전날 강원 정선정학회를 방문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새달라떡 최승준 이사장(정선군수)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이지원·고기슬 부부, 보령시에 따뜻한 기부 실천

나눔 캠페인 성금 100만원 기탁

지난해 자녀의 첫발을 맞아 충남 보령시에 100만 원을 기탁하며 10년간 기부 약속을 한 이지원씨와고기슬씨 부부가 올해도 시정을 찾았다. 시는 최근 부부가 자녀의 2번째 생일을 맞아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보령수협과 대전서부수협에 각각 근무하는 이들 부부는 지난해 딸을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보람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10년간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보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이지원씨와고기슬씨 부부가 자녀의 2번째 생일을 맞아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으로 100만 원을 보령시에 기탁했다. <보령시 제공>

방세환 경기 광주시의원, 동현학교 발전공로 감사패

방세환(사진) 경기 광주시의원인 최근 사립특수 학교인 동현학교 졸업식에서 학교발전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방 의원은 동현학교 장에 학생들의 자립과 취업을 위한 진로직업교육과 증축 등 학교 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역할을 했다. 방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한 것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 중대재해 예방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데스크칼럼

#### 최승필

지방부국장



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9월 22일 오전 9시 30분께 동약사 10만명을 돌파하면서 입법이 눈앞에 왔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이뤄졌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본따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다. 이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계기는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정부가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단체로 구분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및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작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 중대시민단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공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7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및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자라고 정의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및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에 대해서는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억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과, 각각의 조문이 모호해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난 21일 관련 실·과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전문 시정회 개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단체 추진상황과 시·군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한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시·군별 전담 조직, 도·시군 실무자, 시설장,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를 맡고,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공공성이 총괄관리자, 실국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장 근로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적지 않은 질타를 받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재해발생 이후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명시돼 있을 뿐 예방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重重大)災(災)處(處)罰(罰)法)'이 공포 1년여 만인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위법행위를 부과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및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데 반해,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 법은 대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 2020년 8월 20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

####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투고, 사진, 민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수진동, 예능빌딩) 전화 1588-5762 / 팩스 031-758-4360 / 홈페이지 www.jeonmae.co.kr

외부 필진의 취재, 기고, 특기투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낙상·고관절 골절

#### 의학칼럼

#### 신근영

분당제생병원 정형외과 과장



해져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경우, 다리를 끌고 걷는 경우, 운동신경 감각이 저하된 경우 반사 반응 속도가 느린 경우, 근육 약화로 인해 균형 유지 기능이 약화돼 있는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젊은 사람들의 경우 가벼운 타박상 또는 활과상으로 끝날 수 있지만, 노년층의 경우 고관절 골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관절은 허벅지뼈(대퇴골)와 골반을 연결하는 관절을 말하는데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뼈가 약할 뿐만 아니라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 비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훨씬 더 높다. 고관절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극심한 통증과 함께 보행이 불가능하여 장기간의 침상 안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욕창이나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고관절 부위 골절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능한 한 환자를 빨리 움직이게 해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골절 부위를 급속으로 고정하거나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하게 된다.

#### ▲낙상을 예방하려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이 온 다음에는 급속적 외부활동들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눈길 및 빙판길은 피하고 외출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말고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골다공증을 알고 있는 경우 골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소 골밀도 검사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약물 처방을 받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력 약화 방지를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노인들이 사는 집에는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화장실에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타일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일반적으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의 부종과 함께 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거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드물게 미세골절만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골절만 뼈가 더 어긋나거나 날카로운 골절면이 주위 조직을 찔러 부상을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방문해 검사해보는 것을 추천하며 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동변화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겨울철 빙판길, 노인층에 치명적일수도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로같이 얼어붙으면서 낙상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낙상사고는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바닥이 미끄럽거나 지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걸을 때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과 하체의 근력이나 평형유지 기능 등이 약해져서 생기는 조정 능력 감소가 원인이 된다. 특히 다리의 힘이 약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임인년 (壬寅年)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YANGCHEON-GU COUNCIL

http://www.ycc.go.kr



#### 사설

### 대선 정책공약으로 승부 띄워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거대양당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이번 대선판을 흔들며 30% 박스권을 뛰어 넘을만한 '메가톤 이슈'인 '한방'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 일각에선 설 연휴 전후에 야권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역대 대선 기간 중 투표일 40여일을 남겨두고도 이처럼 박스권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4%, 윤석열 후보 33%로 나타났다. 미디어리서치는 이 후보 34.7%, 윤 후보 45.7%, 한국리서치는 이재명 34.5%, 윤석열 33%, 안철수 12.9%로 조사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와 함께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지난 20일 잇따라 발표됐다. 엠베레인더블리, 케이시앤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역조사(NBS) 4차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4%, 윤 후보는 3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앞서 10~12일 진행한 직전 조사보다 이 후보는 3%p 떨어졌고, 윤 후보는 5%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격차가 9%p에서 1%p로 좁혀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2%로 전주 대비 2%p 하락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로 변화가 없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는 17%로 전주와 같다. 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는 46%가 동의했으며 42%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단일화 후보로는 안철수(40%) 후보를 윤석열(34%) 후보 보다 선호했지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만 놓고 보면 윤 후보 52%, 안 후보 37%로 나타났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이재명 후보를, 34%가 윤석열 후보를 꼽았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답은 38.2%,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4.5%였다.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의 65%가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김중민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4차 구도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에선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할 경우 높은 정권교체 여론과 컨벤션 효과 결합돼 단일 후보 지지율이 대폭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두 후보 단일화 과정이

이뤄지면 자본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설 연휴 전에 이 후보가 박스권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후보는 일자리·복지·가상자산 투자수의 비과세 확대에 이어, 저하철 1.24호선, 경부고속철 지하화로 주택 대량공급과 경의·중앙선-GTX-C 지상구간 지하화, 4·6·7호선 급행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대전을 찾아 '충청의 아들' 자처한 윤 후보는 "대전의 선택이 바로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며 충청내륙철도·서산공항·충청 신산업 벨트·제천대덕단지 등 공약 발표했다. 그는 충남 삼교역과 대전역을 잇는 충청 내륙철도를 건설하고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산 공군비행장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공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의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키울 잡고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전략경쟁 등 이른바 '대전환기'의 격랑을 헤쳐나갈 중추적인 과업을 떠맡게 된다. 이번 대선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무엇보다 사대정신에 대한 거대 담론이 실종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선의 유력 후보들은 향후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네거티브 공방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기후 위기, 코로나19 인한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의 난제에 대한 해법이나 경제살리기, 신성장, 사회통합 등에 관한 활약과 비전은 내놓기는커녕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퇴행적 행보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예측불허의 판세를 뒤쫓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역시 단일화 문제다. 민주당은 윤 후보 처가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변호사비 대납 등 이 후보 의혹을 계속 끌고 늘어지고 있다.

이번 공방이 유권자들의 혐오와 냉소를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지만 언제든 결정적 '한방'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0일 TV토론회 승부의 변곡점으로 꼽혀 대선후보들은 이곳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 특히 명절에 굳어진 '설 비상 민심'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일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중도·부동층 공략에 촉각을 기울일 전망이다. 선거판이 지금처럼 흘러갈 경우 미미한 차이로 승부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 단일화가 안 될 경우 누가 당선되든 미미한 차이로 승부가 나게돼 정체성이나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두 후보 가운데 한 후보가 유권자들이 '바로 이것이구나'하는 정책공약을 내내이지 지지율 차이를 크게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전국매일신문 jeonmae.co.kr

대표전화 1588-5762

정 치 부 031-755-5600

경 제 부 02-749-0923

사 회 부 031-755-3484

지 방 부 031-755-5622

광고문의 070-4325-3858

FAX 031-758-4360

1997년 6월24일 창간(등록번호 가-43호(일간))

구독료: 월 1만5,000원 / 1부 700원

본사주소: 중국 요양원사 조선본보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 편집 인쇄: 홍정 박종문 사정 박종필 편집: 원정 실동분 편집: 권영 이일영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수진동, 예능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연천동, 덕신빌딩)

전국취재본부 서울본사 02-749-0822 강원본부 033-251-4886

인천본사 032-751-1478 충북본부 041-688-3722

경기북부본사 031-967-1616 충청본부 043-255-8877

대구본사 053-471-1111 호남본부 061-742-8181

경남본부 055-761-7882 제주본부 064-723-1950

세종본부 044-865-8000



전국매일신문배

# 코리아오픈 하프파이프대회

2022. 02. 17 / 목요일

휘닉스평창 하프파이프

대회종목 | 하프파이프 스키 & 스노보드

참가대상 | 초등학생 이상 모든 스키어 및 보더

시상부문 | 초등부(남/여 1~2학년부, 3~4학년부, 5~6학년부), 중고등부(남/여), 대학일반부(남/여)